

한반도 포커스
FOCUS ON KOREAN PENINSULA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최 용 환
김 상 범
김 일 한
김 상 기
장 철 운
박 민 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 포커스

2024-04



FOCUS ON KOREAN PENINSULA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최 용 환

김 상 범

김 일 한

김 상 기

장 철 운

박 민 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포커스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인 쇄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발 행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웃고문화사(02-2267-3956)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75-7 94300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반도포커스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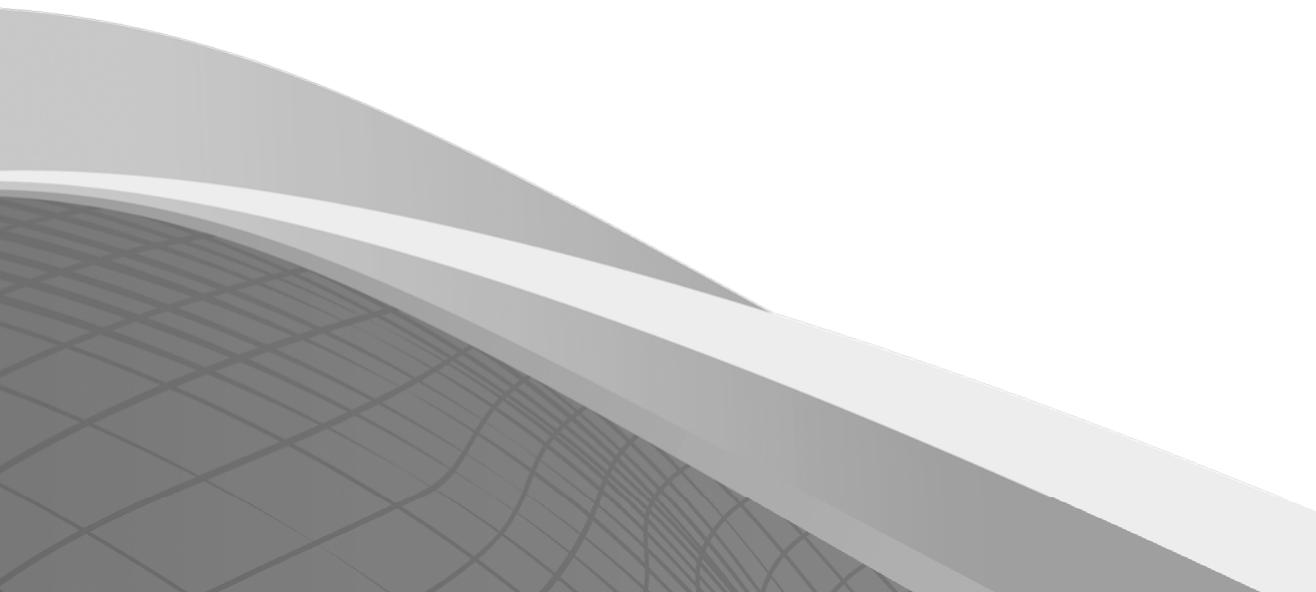
목 차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1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사항과 이후 집행 평가 및 전망	17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8차 당 대회 이후 경제분야 이행과 과제	45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외교: 현황과 분석, 평가	87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107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8차 당 대회 사회문화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127
박민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최 용 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하노이 노딜의 충격과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1년 정도가 더 지나면 북한은 제9차 당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8차 당 대회 이후 9차 당 대회까지 약 80%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성취하였을까? 여기서는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를 점검해 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북한의 선택을 전망해 보았다.

I. 대외·대남 부문: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과 적대적 두 국가론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대외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으로 미러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 주목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먼저 주목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이었다.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무역 분쟁에서 시작하여 첨단기술·산업·환율 등 전범위로 확대되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2018년 북한은 대미 협상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였다. 한미와의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달던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한 것이다. 실제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3월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집권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2018-19년 기간 동안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의 주요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반드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2월 미국과의 하노이 정

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4월에는 러시아와 6월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으로는 한미와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한 안전판 마련을 시도한 것이다. 2021년 9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한 것이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대중정책 변화 배경을 설명해준다.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 9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국제정세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면서, ‘긴장격화된 정세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훌륭한 조건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정세를 ‘신냉전’ 및 ‘다극화’로 바라보는 김정은의 인식은 2022년 연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된다. 이 회의 보고에서 북한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세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현 국제정세가 냉전적 갈등구조로 회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립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일 vs. 중·러·북의 이른바 신냉전 구조가 강화되면,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전략적 공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ICBM시험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불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북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상의 대북 정제유 제한량을 상회하는 불법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중·러와의 직간접적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정수, 2023: 79).

2023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은 중러 대표단을 김정은 좌우

에 세워놓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러·북 연대를 시사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날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음에도, 양국 대표가 이를 묵인하는 듯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구조 강화를 희망하는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미국과의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항상 대미관계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요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탈냉전기 북한의 미국 중심 대외전략 배경에는 탈냉전 국제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곤 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치군사적 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핵보유에 기초한 자신감이다. 예컨대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대응한 위상을 가진 이른바 '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강화 등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제국주의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바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로동신문』, 2021/01/09). 이 기조는 2023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북한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책략적으로 대처하면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외교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23/12/31). 2024년 10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려는 북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의 세 번째 특징은 공세적·모험주의적 성격이 크

게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추어 대응 훈련으로 맞서는가 하면, 한국의 주요 항만, 공항, 군사시설을 대상으로하는 핵공격 훈련도 실시하였다. 2022년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서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그리고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표현은 중국이 양안관계에서 대만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

북한의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실망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한국 내 보수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따른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이른바 ‘신냉전 구조 활용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 북한은 자신들이 이른바 ‘전략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면 직접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북한에 있어 남한(한국)은 당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거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면 굳이 한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2018-19년 국면에서 한국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북한은 한국을 통한 자원 확보 등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실망,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

식, 그리고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및 핵능력 증가 등이 종합되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은 진보·보수 등 한국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느꼈을 개인적 모욕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의 변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II. 군사 부문: 노골적 핵개발과 공세적 핵전략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핵무기 이외에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위협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 추세는 북한의 핵전략 변화를 보여준다. 이른바 실존적 억제 전략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략·전술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었다. 우선 핵전략과 관련해서 북한은 2022년 자의적 핵무기 사용 우려가 있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공세적 핵독트린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는 자신들의 핵무기가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위협하는 성명과 담화를 연거푸 발표하기도 하였다.

핵무력정책법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 핵전략의 첫 번째 특징은 전쟁 발생시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할 것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은 한미연합군에 비하여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전략은 냉전

말기 러시아, 인도와 분쟁중인 파키스탄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즉, 한반도나 그 주변지역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미국의 대량응징보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른바 ‘서울을 구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처럼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논쟁적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는 그들의 핵전략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 같은 북한의 핵전략은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규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민족, 동족, 통일의 대상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거나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은 자신들의 핵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고 핵위협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계속 위협하면서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핵 전력에 있어 월등한 우위에 있더라도 핵무기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한반도에서 실제 분쟁은 핵무기가 오가는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충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8차 당 대회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이슈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등 이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핵무기만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상황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전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부문의 인상적인 발전과 비교하면 재래식 무기 부문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전략무기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개발 등에 있어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인정찰기 개발, 해군무력 강화 등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체계의 상호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러북 밀착이 심화된다면 북한의 재래식무기 현대화에도 러시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내 부문: 수세적 버티기 경제 전략 & 김정은 유일체제 공고화

8차 당 대회가 개최되던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북한은 극단적인 국경봉쇄를 실시하였다. 자신들의 보건의료체계가 허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봉쇄는 3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무역은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대외무역이 재개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1.0%대의 정체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말 개최된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2023년 국내총생산액이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며, '경이적인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반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년간의 국경봉쇄를 해제하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은 물론 내부 경제도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경제가 결정적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가 수출입 품목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전략물자 거래에 있어 어려움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금속, 화학, 기계 등 이른바 전쟁특수를 보이는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수치로 된 계획 목표를 제시한 것은 평양시 5만세대 및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800만톤 시멘트 생산 등이 거의 전부이다. 이는 건설부문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문에 강조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식량증산, 생필품 생산 등 민생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문에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중앙과 지방 간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매해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실시하여 10년 안에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조선중앙통신』, 2024/01/16).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관심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식량과 생필품을 비롯한 기본적 물질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경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1일까지 개최한 당 중앙위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건국 이래 초유로 되는 거창한 지방발전계획’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12개 중요고지’에 포함되는 금속, 화학, 전력 등 중요 공업부문 목표가 잘 완수되고 있으며, ‘농사형편도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까지도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11개 국가를 식별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었다(NIC, 2021: 12).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은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2024년에도 평안북도, 자강도 등 북한 북서부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다.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내부 정치적 측면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김정은 집권 10년 차를 넘어가면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당의 영도역할 강화 및 당 사업체계와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식 이민위천(以民爲天)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민생문제 해결, 인민생활 향상 정책이 추진되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하는 국가 중심적 동원 이데올로기이자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이른바 3중의 위기를 이겨낸 고난 극복의 이데올로기로써 ‘우리국가제일주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당기구와 간부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왔는데, 8차 당 대회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를 다른 한편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실추된 김정은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회분위기를 다잡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민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강조점을 둔 ‘우리 국가제일주의’ 간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 정치 부문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김주애’의 등장이다. 2022년 11월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김주애의 공개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동행이 찾아지면서 외부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김주애 사진의 구도나 호칭 등이 변화하면서 후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IV. 향후 전망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와의 밀착이었으며, 향후에도 한동안 러북관계는 북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될 것이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러북 밀착의 파급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다.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이 전쟁과 한반도 문제가 직접 연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 및 북한과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는 장기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러우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후복구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공세적 핵전력 구축은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폐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부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군 파병에 즈음하여 2024년 6월 체결한 러북 신조약이 양국에서 비준·발효되었다는 점이다. 동 조약 4조는 러북 양국 간 군사원조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한군 파병은 이 조항이 실제 작동하는 것임을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동 조약 7조는 일방의 국제 및 지역기구 가입에 대한 협조를 명기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레짐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탈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조약 10조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우려도 제기된다(최용환, 2024).

러북 밀착이 심화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

질 것이다. 중국은 이른바 신냉전 구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들이 직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시장이 여전히 필요한 중국과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나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멀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중·러·북 3국 연대가 이루어져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기보다는 중·러·중·북 양자관계를 관리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이나 일본과도 전략적 관계 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2025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 직접협상 추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미북협상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 협상 및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북 협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4년 11월 무장장비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을 해보았으나 확신한 것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언급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24/11/22). 둘째,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에 합의하더라도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합의 도출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 경험을 고려할 때, 2기 트럼프 행정부 4년 임기 동안 핵문제의 극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 등 국제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핵문제가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북

한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개인적 관심과 과거의 경험 때문인데, 자칫 트럼프의 개인적 성과 추구가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이 조기에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국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지 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해 NLL 등 기존의 남북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영토 규정을 구체화할 경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남북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 받는 회색지대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지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단기간에 획기적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지방발전과 기계·금속·화학 등 일부 전쟁 특수 산업, 그리고 건설 부문 등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로를 모색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참전에 따른 현금 확보 및 식량·에너지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김정은 시대에 오랫동안 관심을 쏟았으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관광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러북 간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미 2024년에 시작된 러북관광이 북한 관광 산업 재개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러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며,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큰 틀에서 변

화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가진 대북영향력을 활용한 조정·조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러·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만강 하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년 6월 러북 신조약 체결시 양국은 ‘두만강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4월 러시아와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두만강 하구 개방 문제가 논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동북 3성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의 출해(出海) 통로에 대한 중국의 오랜 관심을 고려할 때, 동 사안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정책적 지렛대가 될 것이다. 두만강 하구 개발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오래된 과제이지만, 변화된 국제질서 하에서는 중·러·북 3국 협력의 가능성과 향배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 국내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정상화라는 김정은 집권기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강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에서 선대의 정책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은 내부 정치에 있어서도 자신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탈냉전 이후 지속되던 시장화 추세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와 국가가 강조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노선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대외·대남·군사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정비·보강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9차 당 대회 이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적 측면에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부 및 러북 밀착의 파급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강화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문의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신정수. 2023, “팬데믹 전후 북한 에너지 수급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9월호.
- 최용환. 2024,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이슈브리프』, 62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1월 1일).
- 『로동신문』. 2021/01/09.
- 『조선중앙통신』. 2023/12/31, 2024/01/16, 2024/11/22.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2021,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Responses Increasing Challenges to US National Security Through 2040* (October 21).

—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사항과 이후 집행 평가 및 전망

—

김 상 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I. 제8차 당 대회 개최의 배경

이 글은 제8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던 당시 북한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 결정집행 4년 차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분야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및 2025년 과제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 분야는 당 대회 목적에 맞게 당과 지도자의 영도력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 대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체제 존속을 위해 현안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당 위에 수령이라는 정치적 국체에 기반해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본질적으로 수령의 정치사상적 권능 강화를 통해 당-국가체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세부적인 정책과 노선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은 5년 마다 당 대회 개최를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회 결정 집행 4년 차라는 시기는 사실상 그 성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또한 해당 시점에서의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 제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총력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24년에 대해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적인 시점이자,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이며, 성과와 그 경험은 적극 확대하고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5/26: 1). 그러므로 당 대회 결정 집행 4년 차인 2024년은 제8차 당 대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것은 현재 북한체제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2026년 1월 개최가 예상되는 제9차 당 대회의 주요 아젠더를 예측하고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개최는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증장

기적 차원에서 자강을 통한 대미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는 소위 3중고로 불리웠던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자연 재해,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 강화된 한미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당-국가 시스템 재정비의 절박함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지역 비핵화를 조건으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지역 이외의 다른 핵 프로그램과 시설까지도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No Deal)이라는 결과에 대해 핵 프로그램 발전을 전제로 경제제재를 상수화한 자급자족체계의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4일 동안 당 정치국 확대회의(4/9), 당 전원회의(4/10), 최고인민회의(4/11-12)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북한 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다음 날 당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도, 3일 동안 다른 형태의 당-국가회의체를 연속해서 개최한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 문제점들을 자력갱생에 기반한 자급자족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함으로써 만회하려 하였다.

친서 외교를 이어가던 북미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동년 8월에 계획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와 양국 간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로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훈련의 재개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동년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 10월 북미 스톡홀름 실무회담의 결렬로 인해 결국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연말까지 요구한 '새로운 섀범'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한미의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훼손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회복, 대인민 설득, 경제제재로 인한 체제 약점

을 만회를 위해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공식적으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역대 최장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및 무력 건설과 관련된 현안을 7시간 동안이나 보고하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발언은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미관계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비 전략의 선포를 의미했다.

국가재정비 전략은 시행 첫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Corona pandemic)을 비롯해 경제제재, 자연재해 소위 3중고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직후부터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와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북한의 의도는 남한에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내부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20년 8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기 못하여 계획되어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냈다”며, “지난 5년간의 사업에 이룩된 경험들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할 것

을 결정”하였다. 이어 2020년 10월 5일에 개최된 당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당과 최고지도자의 영도력 강화를 전제로 핵 억제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했음을 알 수 있다.

II. 제8차 당 대회 북한 정치 분야 주요 과업 제시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중요한 과제”라며(『로동신문』, 2021/01/09: 3),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새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임을 밝혔다(『로동신문』, 2021/01/13: 1).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제8차 당 대회를 북한 자체 내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편시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며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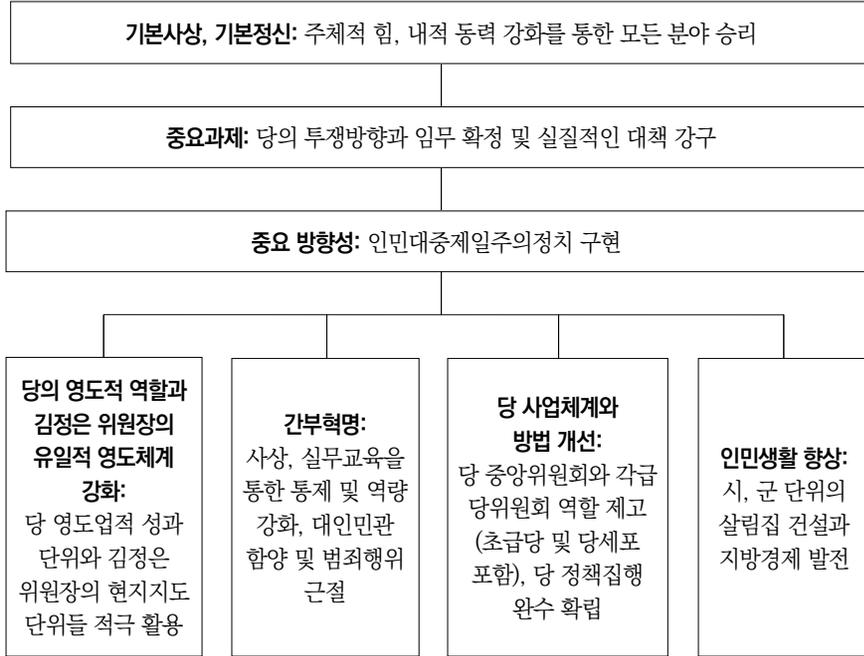
또한 김 위원장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때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아도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언제나 배심든든히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지난 5년 당사업의 주되는 총화이며 귀중한 경험”이라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며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총결기간 재확증된 귀중한 천리”라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2021/01/09: 2). 그의 발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통해 당의 영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제

8차 당 대회 결정관철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인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동시에 우선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당 정책관철의 모범으로서 당의 영도업적 성과 단위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도 단위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당의 기본핵심역량인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상, 실무교육과 통제를 강화, 그들의 정책 수행 능력과 대인민관 함양을 통한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세외부담행위 등 온갖 범죄행위 근절을 핵심으로 한 간부혁명을 내세웠다. 또 다른 하나는 당 정책결정관철 과정에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역할 및 각급 당 위원회의 역할 특히 초급당과 당세포 강화, 당 정책결정의 무조건적인 완수를 핵심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방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일 이룩하겠다고 밝히며,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농업생산량 증대 및 지방경공업 발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업의 완수를 위해 북한은 국내외 정세 인식과 시대적 요구를 명분으로 당 규약을 수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선군의 정치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 조선인민군을 기존 당, 수령,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재규정하였으며, 군 당위원회 조직의 위상을 기존 당 중앙위원회급에서 도당위원회급으로 격하시켰다. 이 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질적인 제2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총정치국의 위상도 격하되었다. 여기에 더해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를 신설해 비대해졌던 군과 군대 내 당 조직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갔다.

〈그림 1〉 제8차 당 대회 정치분야 주요 과업 정리



출처: 『로동신문』(2021/01/09-13)을 참고해 저자 정리.

다른 하나는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전원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당 정치국에는 당 전원회의의 소집 권한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한 개의 조로 구분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논의, ▲당·국가 주요 간부의 임명,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상무위원들의 당 정치국 회의 사회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당 전원회의에는 비상설기구를 포함한 당 중앙위원회 부서 신설 및 당규약 수정 권한과 이를 차기 당 대회 개최 시 승인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부여하였다. 이러한 기초 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현안의 성격에 따라 회의 개최에 필요한 필수 참석 인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게 조정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긴급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였다.

여기에 더해 기존 재정 문제만을 다루었던 당 중앙검열위원회를 당 중앙검사위원회로 통합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영도체계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 감독하고 당의 규율과 신소청원처리권한도 부여함으로써 당 규약 위반 행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안에 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리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을 뿌리뽑자면 규율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이번 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기강을 세워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2021/01/11: 3). 그의 발언을 보면 당 중앙검사위원회로의 통합은 당의 영도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규율을 세우고 이를 통해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통합 강화된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지방 도, 시, 군 당 검사위원회의 권한의 강화와 그들에 대한 규율을 통한 관리, 감독의 강화 연결되어 지방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연결되었다.

종합해 보면,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주요 과업 제시의 의도는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을 정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위 3중고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의 핵심기구와 간부들이 법, 제도적 근거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반당적 사고, 간부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제거하려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Ⅲ.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정책 집행 과정과 평가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책결정 관철을 위해 2024년 11월 현재까지 총 10회의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중 정치 분야와 직결되는 이슈를 전원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방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혁명, 육아정책, 교육사업, 인민생활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들을 단독 의제로 설정하고 성과에 기반해 기존 김일성, 김정일시대 인민들의 소위 ‘맹목적 추종’ 경향을 ‘능동적 추종’으로 변화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더 크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정치 분야 중요 방향성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표 1〉 제8차 당 대회 결정 집행을 위한 당 전원회의 주요 아젠더 리스트

기, 차	개최 시기	주요 아젠더
제8기 제2차	2021.2.8. -2.11	①5개년계획 첫해 과업 관철 ②반·비사회주의 투쟁 ③당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 ④당규약해설 심의 ⑤조직문제
제8기 제3차	2021.6.15. -6.18	①주요국가정책들의 상반기도 집행정형 총화와 대책 ②농사문제 총집중 ③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 대비 철저 ④현 국제정세 분석과 당의 대응방향 ⑤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 ⑥당의 육아정책 ⑦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도 상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 총화 ⑧조직문제

1 이 장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보다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간부혁명, 당 사업체계와 방법 개선, 인민생활 향상 문제를 집중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다.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사항과 이후 집행 평가 및 전망

기, 차	개최 시기	주요 아젠더
제8기 제4차	2021.12.27 -12.31	①2021년도 주요 당·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2년도 국가예산안 ②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③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 ④당규약의 일부 조항 수정 ⑤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 총화 ⑥조직문제
제8기 제5차	2022.6.8. -6.10	①조직문제 ②2022년도 주요당·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 ③현 비상방역상황 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제 ④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 수정, 보충
제8기 제6차	2022.12.26 -12.31	①2022년도 주요당·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 ②조직문제 ③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 ④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⑤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
제8기 제7차	2023.2.26. -3.1	①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중요과업 ②인민경제계획수행 규율 확립 ③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 ④조직문제
제8기 제8차	2023.6.16. -6.18	①2023년도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 가속화 ②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조치 ③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 제고 ④인민주권강화 ⑤당규를 건설 ⑥조직문제
제8기 제9차	2023.12.26 -12.29	①2023년도 당·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②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시책집행 책임성 강화 ③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 ④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⑤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⑥조직문제
제8기 제10차	2024.6.28. -7.1	①2024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 ②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 개선 ③중요부문의 사업규를 강화 ④사법제도의 공고발전 ⑤조직문제

출처: 『로동신문』 각호를 참고해 저자 정리.

1.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2024년 현재까지 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당 회의체 시스템을 복원, 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 정책집행에 대한 지도와 총화를 강화하고, 당 규약과 헌법에 기초해 정책과 노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도 법·제도 준수에 기초한 인식 전환을 통해 당과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이후 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에 맞게 현재까지 당 정치국 회의 22회,² 당 전원회의 10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7회, 총 5차례만 공개하고 있는 비서국 회의를 포함해 총 44회 이상의 당 회의체를 개최해오고 있다. 당 회의체를 복원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가장 품을 많이 들였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 성과에 대해 자평하고 있다(『로동신문』, 2021/12/22: 1). 특히 한미의 군사적 위협과 재해성 기후(기후변화)를 자신들의 체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당 회의체들을 통해 이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당 회의체의 주기적 운영을 통해 당 정책집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시기 구태의연한 당 회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원회의에서 제시되는 과업관철을 위해 집행 담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게 토의 채택하였으며, 전원

2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2021년 8월-10월 사이 개최), 제8기 제7차(2022년 2월-4월 사이 개최), 제8기 제18차(2023년 12월-2024년 1월 사이 개최) 정치국 회의에 대해 개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는 문제 해결의 출로를 찾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령도예술을 한층 세련시키고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가 해마다 연말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집행을 위한 중간총화회의로서 6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사업체계가 현재 우리 사업에 유익하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6월과 12월 최소 두 차례 이상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를 통해 당 대회 결정관철의 과정을 지도, 검열,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 부문별 분과 연구 및 협의회 개최, 결정서 초안 작성, 당 정치국 심의에 제출, 당 정치국에서 심의 후 당 전원회의에 제출해 확정짓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당 전원회의 운영방식을 채택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먼저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동시에 개최해 당 의사결정의 중첩성을 높여 간부와 해당 기구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과 인민들에게 당 회의체를 통해 체제의 생존력과 내구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 당 정책결정 관철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당 회의체 운영패턴은 제9차 당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범, 2021: 6). 북한의 이러한 회의 패턴의 유지는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당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김정은 위원장만의 리더십을 정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와 동시에 북한은 후대 수령으로서의 선대 지도자들의 사상을 심화, 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신만의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³ 대표적인 예가 ‘김

3 본고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간 이론적, 구조적 충돌 현상은 다루지

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다. 이 용어는 2021년 2월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의 광명성절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부터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이라는 표현으로 최초로 등장했으며, 동년 4월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당시 조용원 당 조직비서에 의해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명확히 표기하기 시작했다.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 비서들을 지도, 교육하는 대회에서 당 조직비서에 의해 김정은의 혁명사상이라는 용어가 공식 제기된 것은 제8차 당 대회에서 기본정치방식으로 명분화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본격화,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김상범, 2024: 136-137).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개념 정의, 구조 및 체계화 노력, 체제 전체 내의 일색화 움직임은 당 대회 결정관철 4년 차인 올해 북한 정치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해 “우리혁명의 지도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승리로 향도하는 위대한 실천강령인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인민의 숙원을 뚜렷한 실체로 펼쳐놓는 변혁적로선”으로 정의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1/06: 2, 2024/04/24: 1). 또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해 “전면적국가부흥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백과사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5/03: 1).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우선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 후대 수령으로서 선대 수령들의 사상적 업적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치, 도덕적 의무를 벗어나 현재 “시시대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로동신문』, 2024/07/06: 2). 물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않는다.

서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두 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해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수식은 북한의 국제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북한 최고의 사상적 준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해 “중요한 구성을 이루는 령도방법에서 전면적으로 밝힌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⁴”로 소개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3/06: 3). 이것은 영도방법에 대한 내부적 정의, 구조, 체계화가 되었거나 혹은 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노동신문 상에 2024년 5월 6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15회에 걸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혁명사상의 정의, 성격, 주요 정책과 노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민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2024년 현재 북한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것을 당 사상사업의 주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4/11: 3).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 간에는 사상적 정합도 존재하지만 모순과 충돌지점도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상적 충돌과 모순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최고강령,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실천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포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체계화된 사상이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강화를 위해 현지도도 표식주, 표식비, 단독사진 벽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여름

4 밑줄은 저자 강조.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도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현지도 표식비와 표식주를 최초로 건립하기 시작했다. 현지도 표식비와 표식주는 황북 은파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 함남 홍원군 은포노동자구, 단천시 선광동,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지역에 건립되었다(『로동신문』, 2021/09/12: 1). 최초로 2023년 10월 29일 연포온실농장에 김정은의 단독 혁명사적비를, 평양의 위성도시인 평성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동 혁명사적비를 건립하였다(『로동신문』, 2023/10/30: 2, 2023/11/16: 2). 북한은 2023년에만 김정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 공동 포함)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 현지도 표식비를 총 16개를 건립하였지만 단독 혁명사적비와 선대 지도자들과 나란히 혁명사적비를 건립한 적은 없었다(김상범, 2024: 146).

2024년에 들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 되었다. 정초부터 열렸던 농기계공업발전-2023 전시회장, 1월 광천닭공장, 2월 검덕광업연합기업소(보도일 기준), 3월에 준공된 강동종합온실농장, 5월 당 중앙간부학교에 김정은 위원장을 단독으로 형상화한 단독 사진 및 벽화가 건설되었다. 또한 5월 당 중앙간부학교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지도자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은의 현지도 표식주, 표식비, 단독 벽화 등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수령의 혁명역사를 통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경제발전 및 혁명, 건설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한성훈, 2019: 51).

2. 간부혁명

간부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당 회의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당의 유일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다. 당 대회 결정관철 4년 차인 올해에도 북한은 간부들의 사상, 정신적 상태 및 사업의 조직력과 전개력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로동신문』, 2024/9/4: 3).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당의 사상과 이념, 정책과 노선을 집행하는데 중앙 및 지방 간부들이 인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24년 6월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간부혁명에 대한 의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 것과 동년 10월 10일 당 창건 79주년 기념 김정은 위원장의 ‘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환 공산주의혁명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하의 연설문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아름답지만 이를 마음놓고 맡길만한 준비된 일군이 적은 것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간부문제가 체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로동신문』, 2024/10/11: 2).

북한이 당 중앙간부학교를 개건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지도도 및 기념연설까지 하면서 간부혁명을 강조한 이유는 간부들의 사업방법 및 태도, 대인민관에 대한 문제를 현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ㄷ.ㄷ) 결성 76돐에 맞춰 당 간부양성의 최고 교육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시대 우리 당 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작풍건설, 규율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새시대 5대당건설노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4년에만 해도 3월 30일, 5월 15일, 5월 21일, 6월 1일에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10월 10일에 당 창건 79주년 기념식 또한 이곳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5대 당 건설노선은 당 건설이 정치, 사상, 조직, 규율, 기풍 건설 등 각 영역을 포함하고 당 건설의

체계성과 일체성을 마련하여 완성된 형태의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전 사회에 교육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하게도 이 문제는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엄격한 법·제도를 통해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상범, 2024: 146-147).

북한은 간부혁명을 위해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당 지도간부들 및 중간간부들을 재교육시킴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과 독단 등 당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들을 사전에 차단해 당과 국가정책과 노선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이 간부혁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간부들의 무능과 관료주의적 행태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체제 내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부혁명의 문제는 당 제9기 체제에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당 사업체계와 방법의 개선

당 사업체계와 방법의 개선과 인민생활 향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여전히 전자와 후자는 당 정책집행 완수와 인민들의 혜택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각급 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는 당의 영도력 강화뿐 아니라 중요하게도 재해성 기후로 인한 재해, 재난 등 북한 내부의 위급 상황 발생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지도간부들과 그들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간부혁명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당이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플랜’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김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당의 건설, 그를 통한 사업체제와 방법의 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당의 건설과 그를 통한 사업체제와 방법 개선의 핵심은 바로 교육을 통한 당의 조직력과 간부들의 사업능력 및 작풍의 제고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분야 발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이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당 간부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당, 정치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교육, 관리하는 문제는 당 사업체제와 방법 개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당의 전략적 가치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6/12: 2).

당 조직지도부는 2021년 3월 북한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주관하고 조용원 부장은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와 기층당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세포 비서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시키기 위해 당 제6차 세포비서 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을 총화, 분석하고 제8차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당세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였다. 2023년 9월에는 조용원, 김덕훈, 리일환, 김재룡, 오수용 등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제1차 도, 시, 군인민위원장 강습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제1차 당규률조사부분일군 강습회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와 당 규률조사부장 김철삼의 주도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당 사업체제와 방법 개선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중앙당뿐 아니라 각급 당 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강습, 지도와 검열을 강화해 나가며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고 넓어야 하는 부분은 중앙당과 각 도, 시, 군당 간 사업태도와 방법 간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중앙위원

회의 경우 북한 정치의 핵심으로 그에 맞는 위상과 자원이 총집중되어 있지만, 지방 당의 경우 해당 지방이 북한체제에서의 전략적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지역의 자원과 간부들의 수준이 상이하다. 더 중요하게도 북한의 지방정치와 경제는 중앙당의 공급 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지 오래이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를 확대회의 형태로 개최하고 각 도, 시, 군당 책임 비서들뿐만 아니라 조직국, 선전선동국 등 실무 책임자들까지 방청으로 참석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의 정책의 노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의적, 독단적, 주관적으로 해석해 사업을 시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에 대한 중앙당의 지도와 통제력을 복원,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하는 문제로 기층당 조직사업, 그 중에서도 당세포 강화를 지목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당세포 강화를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 시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사안은 당세포들이 단결을 중시하고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03/20: 3). 북한이 이 문제를 현 시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층당 사업의 기본이 결국은 당 정책집행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김정은 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성과가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기층당 사업은 성과보다는 여전히 성과를 내기 위한 교육과 검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층당 내의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간부들의 인민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로 보인다(『로동신문』, 2024/10/14: 3, 2024/10/20: 3). 다시 말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과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직접 눈에 보이는 성과와는

달리 인민들과 가까이 있는 당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2월 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와 2024년 10월 당 창건 79돐 기념 연설에서도 전당의 초급비서들에게 ‘언행을 바로 하라’고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2년 동안이나 지속된 김 위원장의 지적을 통해 당 간부들이 대인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지어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당의 정책과 노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당과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인민생활 향상

북한이 인민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 한 사업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과 시, 군 단위의 살림집 건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가 종료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자재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 계획을 당 대회 결정목표보다 낮게 수립한 것에 대해 간부들을 질책하고, 원계획대로의 집행을 위해 동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로동신문』, 2024/02/25: 1).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 결정관철을 수령을 대하는 간부들의 자세와 입장문제로 환원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 사업과는 별개로 서포 지구에 새로운 거리 건설에 대한 과업까지 결정하였다(『로동신문』, 2024/05/16: 3). 북한은 2024년 현재까지 송화거리, 화성지구 1, 2단계 1만 세대, 보통강 다락식 주택지구, 서포지구 새거리, 립흥거리, 전위거리 살림집 건설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연포온실농장, 중평온실농장, 강동종합온실농장 등 대규모 온실농장을 평양과 지방에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8차 당 대회 결정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의 하나는 바로 농촌지역의 살림집 건설사업이다. 이 성과는 북한이 현시기 농촌지역 살림집 건설사업을 시, 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업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 사업을 위해 시, 군 단위별로 제대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건설여단을 조직하고 중장비 제공, 기능공 양성 등을 지원하며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중장비, 기술인력을 포함한 노동력 자체, 원자재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인력들의 타기관으로의 유출, 같은 시, 군 내 다른 조직들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현상 등도 발생했다(『로동신문』, 2024/08/12: 5, 2024/08/25: 4). 그러나 북한은 건설여단 단독 건물 건립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상 제고, 여단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증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24/08/17: 4).

이 사업의 특징은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혁명강령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2024년 10월 초까지 전국 141개 시, 군에서 4만 1600여 세대에 신축한 살림집을 제공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다(『로동신문』, 2024/10/07: 1). 농촌지역 살림집 건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과 건축물의 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살림집 건설사업은 제9차 당 대회에서도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개성 시내,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 등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에서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뒤집고 2024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0차 회의에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 군에 김화군과 같은 현대적인 지방공장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발전20×10정책>>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지방공업은 각 도, 시, 군의 자체 자원과 인력, 기술에 의해 운영, 발전되어 왔던 관계로 고난의 행군 시기 큰 어려움을 겪었

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공업공장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없거나 가동이 불가능한 공장들을 폐쇄하고, 중요 생산기술 공정이 비슷한 공장들끼리 통폐합시키는 등 사실상 작동이 가능한 공장만 운영하는, 즉 생산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공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했다.

북한은 2024년 1월 23일-24일까지 북한체제 최초로 1박 2일 묘향산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인민군대를 동원해 전국 의 시, 군 단위 지방공업공장들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공장 건축, 기계설비 제공은 당과 정부에서 부담하고 기능공 양성 및 원료 기지 조성은 지방 도, 시, 군에서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지방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방발전20×10비상 설추진위원회에서 설계로부터 자재, 자금 제공, 원료기지 조성 등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운영 준비에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지도, 감독하는 사업체계까지 구축하였다.

중요한 것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정치분야 결정사항 중의 하나였던 당 중앙위원회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당 정치국 위원들이 각 시, 군을 하나씩 맡아서 사업을 책임지게 만들었다.(『로동신문』, 2024/01/25: 4). 사업 첫째 지방공업 공장들이 건설되는 지역은 성천군, 재령군, 은천군(이상 황남), 연탄군, 구장군, 은파군(이상 황북), 구성시, 운산군(이상 평북), 속천군(이상 평남), 어랑군, 경성군(이상 함북), 함주군, 금야군(이상 함남), 동신군, 우시군(이상 자강), 김형직군(양강), 이천군, 고산군(이상 강원), 개성시 장풍군, 남포시 온천군 등 총 20개 시, 군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2024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의 새로운 표본 기지로 건설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동년 7월 15일 직접 신포시를 방문해 ‘지방발전 20×10비상설추진위원회’ 내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을 담당할 분과 조

직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동년 8월 24일과 25일 당 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과 함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및 양곡관리시설까지 병행 건설을 지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현지에서 소집하고 당 정책으로 확정지었다.

현재 이 정책은 소위 지방 10년 혁명의 1년 차 사업이다. 2024년 11월 현재 건축물 완공도가 90%에 달하며 건축의 질 제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과 기자재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료기지 건설이 핵심이다. 현재 여맹과 지방 당 간부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원료기지 건설이 진척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는 목표로 한 지방공업공장의 준공과 이후 공장운동을 살펴볼 때 가능하다.

IV. 2025년 과제와 전망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당 회의체의 복원 및 정상화를 당의 영도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 규약에 근거한 당 회의체의 운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이후 당 회의체를 통해 인민대중 제일주의에 기반해 사상, 법·제도, 정책간 관련성을 높이며 결정 사항의 이행과 관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이른바 ‘회의정치’를 지속하며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당 전원회의 및 각종 교육, 강습회에서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문별 토론회 및 연구회를 진행하며 기존 당 고위관료들이 주도했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집단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당원들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회의정치를 통해 계획-지도-집행-총화-검열-대책 수립이라는 정치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시스

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김상범, 2024: 112-113).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①당의 지도사상 및 지도적 지침으로 공표, ②전국적 차원의 일색화 운동, ③이념적 체계성 구비가 필수적이다(이기동, 2012: 15-16). 현재 북한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전당과 온사회를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올해 들어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자는 제하의 연속된 기사와 각종 사회과학분야 연구토론회에서 영도방법체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1,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이념적 체계성을 완비해 제9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문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또한 수령의 절대존엄을 형상화한 단독 사진, 벽화, 현지도 표식비, 표식주 등은 북한의 당 사상사업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부혁명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당 제8기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부혁명의 핵심은 표면상으로는 당과 지도자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당 간부들의 무능과 뿌리깊은 본위주의 및 관료주의를 뿌리 뽑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국가회의체는 현재와 같이 간부들의 업무성과 및 당 생활까지 지도, 검열해 나가는 이원화된 내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각 분야별, 지도계선별 중심의 교육, 강습회를 지속함과 동시에 지방 인민위원회를 포함한 지방 당, 정 간부들에 대한 지도와 검열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 중앙간부학교의 역할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믿고 맡길만한 믿음직한 간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학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면밀히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 사업체제와 방법 개선에서 중요한 과제는 중앙당과 지방당 간부들의 사업 능력과 방법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중앙당 및 지방의 고위간부들 인사들

의 경우, 당-국가회의체를 통해 사업의 결과를 놓고 정치적, 법·제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간 및 하급 간부들의 경우 경험주의, 주관과 독단, 고압적인 태도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각 지방에서 당 간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친인민관 형성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을 일신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당 간부들의 낮은 정치의식으로 인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당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지도계선별, 세부정책과 노선별 지도와 강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민생활 향상 부분과 관련한 당 대회 결정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정책 20×10정책의 성과 여부이다. 현재 북한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살림집 건설, 병원 및 교육시설 건설, 수해 복구사업 및 재해성 기후 예방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과학기술보급(복합문화센터 성격), 양곡저장소까지 추가된 지방공업공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세 번의 자문 자답이 이뤄졌을 만큼 북한은 그 성과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건설의 질이고 원료기지 조성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물의 질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지역에서 모든 동원가능한 인력들이 원료기지 조성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첫해부터 공장운영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북한으로서 그 성과는 공장이 완공되어 작동에 들어간 다음에서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자발적 추종을 하는 인민들 대열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배, 성장, 그리고 안보의 공간으로서의 지방만들기 계획’은 북한 체제를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상범. 2024,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창원: 경남대학교출판부).

_____. 202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IFES 브리프』, 2021-20 (극동문제연구소, 6월 22일).

한성훈. 2019,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로동신문』. 2021/01/09,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_____. 2021/01/11,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진행.”

_____. 2021/12/22, “정론-주체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역세계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10년의 혁명령정에 삼가 이글을 드린다-제3편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

_____. 2024/01/06,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령도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는 향도적기치이다-중앙연구토론회 진행.”

_____. 2024/01/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_____. 2024/01/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_____. 2024/02/25, “정론-또다시 올린 2월의 봄우뢰-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소식에 접하고.”

_____. 2024/03/06, “우리 당이 창조한 새로운 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가자(1).”

_____. 2024/03/11, “당세포들은 맑은 진지를 철저히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m³당책임제의 원칙에서.”

_____. 2024/04/11, “사설-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_____. 2024/04/24, “조선로동당 제2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진행.”

_____. 2024/05/16, “조선중앙통신사 상보-청년중시의 숭고한 경륜이 떠올린 충성과 보답의 결정체-수도 평양에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운 전위거리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_____. 2024/05/26, “사설-당대회결정관철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하는 올해의 상반기사업을 몇몇이 총화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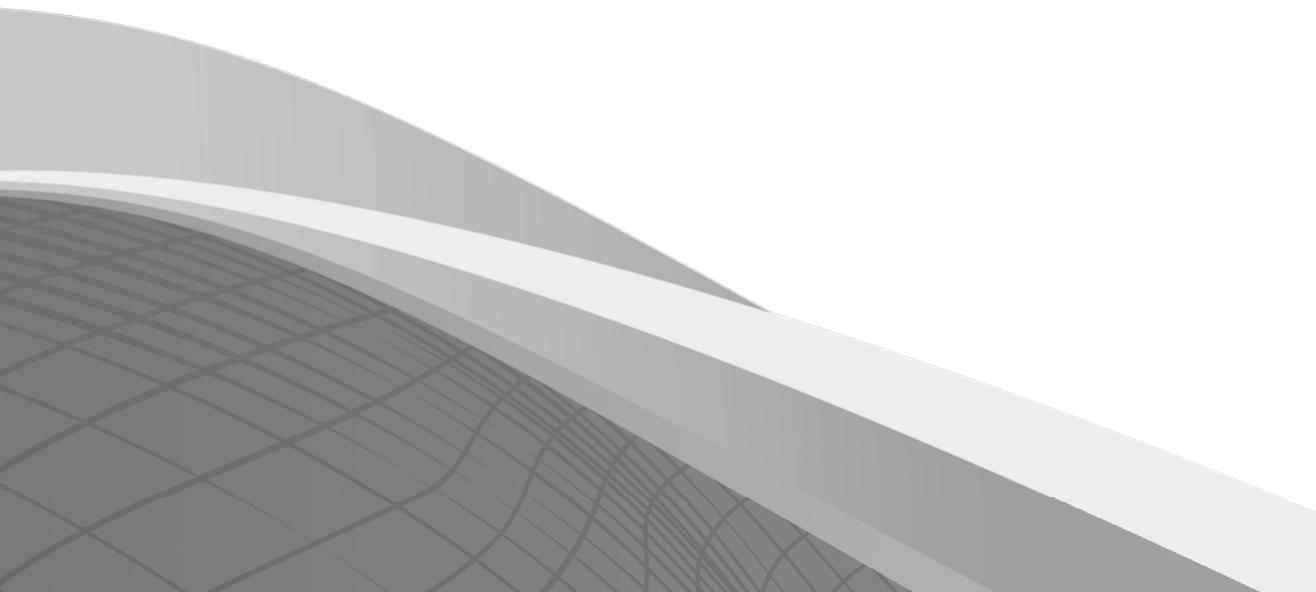
_____. 2024/06/12,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가치관.”

- _____. 2024/07/0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혁명사상과 자주강국건설위업을 길이 빛내어나가자-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 _____. 2024/08/12, “지역의 건설력량을 키우는데서 창조된 경험-단천시일군들의 사업에서.”
- _____. 2024/08/17, “지방건설력량강화에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개천시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 _____. 2024/08/25, “건설력량강화에서도 사상발동이 선차이고 기본이다-경흥군일군들의 사업에서.”
- _____. 2024/09/04, “옳은 사업방법과 작풍이자 높은 조직적수완이며 전개력이다.”
- _____. 2024/10/07, “날과 달을 이어 련일 펼쳐지는 사회주의농촌의 천지개벽풍경-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41개 시, 군에서 4만 1600여세대가 새집들이를 진행하였다.”
- _____. 2024/10/11, “김정은-일군들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주체 113(2024)년 10월 10일.”
- _____. 2024/10/14, “당중앙이 전당의 초급당비서들에게 준 고정분공을 다시금 깊이 새기자.”
- _____. 2024/10/20,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다.”

제8차 당 대회 이후 경제분야 이행과 과제

김 일 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I. 서론: 8차 당 대회 중간평가-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2023.12.26.-30)

2023년 12월 북한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경이적인 승리”를 선언했다(『로동신문』, 2023/12/31). 8차 당 대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회의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액¹이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장기화 국면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이 관통하는 시점의 발표에 대해 대체로 과장된 보도라는 평가(통일연구원, 2023: 8)와 함께 북한경제의 규모를 고려한 기저효과, 또는 이례적인 성장 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8차 당 대회 이후 경제분야 이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정, 대외무역 등 거시경제 상황, ▲금속공업, 농업 등 산업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거시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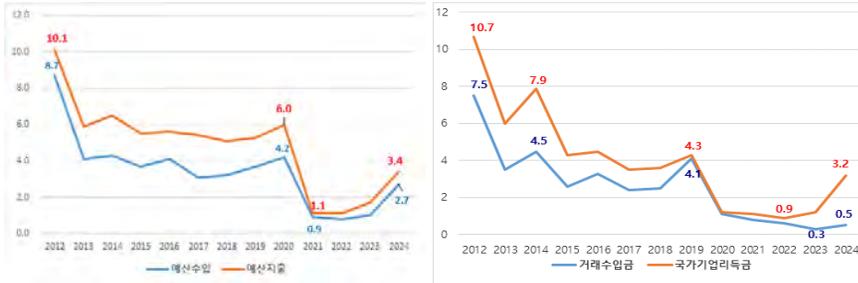
1. 재정

북한 재정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예산수입과 지출증가율은 1.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즉, 현상유지 또는 정체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예산수입과 지출증가율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2024년부터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1 GDP는 당해년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부가가치의 합계, 즉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2.7%와 3.4% 증가율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70% 수준을 회복하면서 3년 동안의 정체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예산수입/지출 증가율(좌) 거래수입금/국가기업리득금 증가율(우)



북한 예산수입의 83.7%(2023년 기준)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부가세)과 국가기업리득금(법인세) 증가율 역시 예산수입과 지출경향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 내외를 기록하면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했다. 반면에 2024년 국가기업리득금은 완연한 반등세를 보이며 3.2%, 거래수입금은 0.5% 증가율을 예고했다.

최근 재정운영계획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3년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14.7% 증가한 것이다. ▲식량증산과 ▲농촌살림집 등 농촌건설 정책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것이다. 농기계 생산과 공급, 관개체계 정비 등 식량증산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같은 지방발전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투자율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지출영역인 인민시책부문은 교육과 보건, 그리고 체육 및 문화예술부문 전체에서 확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의 긴축재정 기초와는 달리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예산지출 증가율

	증가율 (%)	인민경제(투자)							인민시책(지출)				
		농업	수산	경공업	기간 공업	과학 기술	기본 건설	산림	교육	보건	사회 보장	체육	문학 예술
2012	10.1	9.4			12.1	10.9	12.2		9.2	8.9	7.0	6.9	6.8
2013	5.9	5.1			7.2	6.7	5.8		6.8	5.4	3.7	6.1	2.2
2014	6.5	5.1			5.2	3.6	4.3		5.6	2.2	1.4	17.1	1.3
2015	5.5	4.2	6.8		5.1	5.0	8.7	9.6	6.3	4.1		6.9	6.2
2016	5.6	4.3	6.9		4.8	5.2	13.7	7.5	8.1	3.8		4.1	7.4
2017	5.4	4.4	6.8		4.5	8.5	2.6	7.2	9.1	13.3		6.3	4.6
2018	5.1	5.5				7.3	4.9		5.9	6.0		5.1	3.0
2019	5.3	5.7				8.7	6.6		5.5	5.8		4.5	4.1
2020	6.0	7.2				9.5			5.1	7.4		4.3	5.8
2021	1.1	0.9				1.6			3.5	2.5		1.6	2.7
2022	1.1	2.0				0.7			2.6	0.7		0.8	
2023	1.0	14.7			1.0	0.7	0.3		0.7	0.4		0.1	0.3
2024	3.4	0.1				9.5	0.5		6.0	5.5		5.0	5.0

* 출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발표 자료 각 연도.

* 2014년 체육: 평양청춘체육촌 건설, 종목별경기장과 체육인 숙소 서산호텔 건설 등

* 2016년 건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 류경안과병원 등 15개 건축물 건설 등

* 2017년 보건: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건설, 제약공업 현대화 등

* 2023년 농업: 식량증산, 농촌건설 예산증액

* 2024년 재정계획: ▲2025년 과학기술 별도 분리, ▲비상방역 전년 동일

2. 대외무역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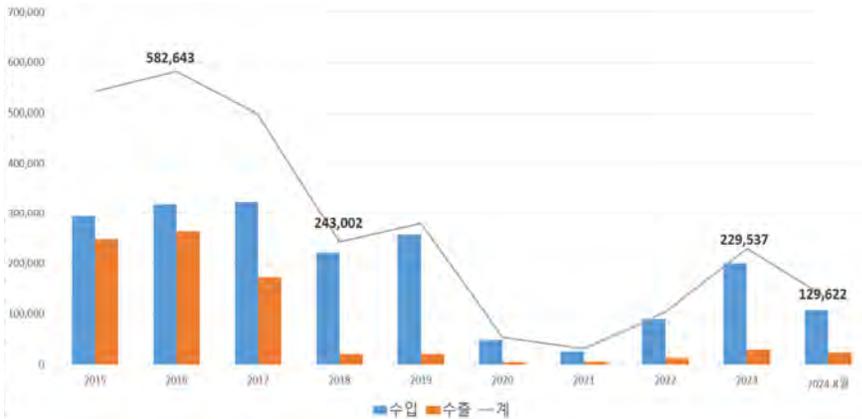
대외무역은 재정정책과 함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봉쇄와 무역중단이 이어지면서 2020-2022년 3년 기간 무역이 실종된 상

2 대외무역은 최장호(KIEP)의 미출간 자료를 인용했다.

태가 진행되었다. 2023년 대중무역이 재개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무역총액은 2018년 수준에 근접했다. 2024년 8월 현재 12억 9천 달러로 2023년 14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만달러)



* 출처: 중국해관통계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입 품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재이전 석탄, 철광석, 의류섬유, 수산물 등이 수출상위품목을 차지했다면 2017년 이후에는 가발, 수염, 눈썹류와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등 임가공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품목 역시 2017년 이전에는 기계·전기 기기류, 광물성 생산품, 섬유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사람머리카락, 섬유가공용 합성 필라멘트사 등 임가공용 소재 및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용 자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양1만세대, 농촌살림집, 지방공장 건설 등 건축 활성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2〉 대중국 수출입 품목(10순위, 2024년 1~5월)

(단위: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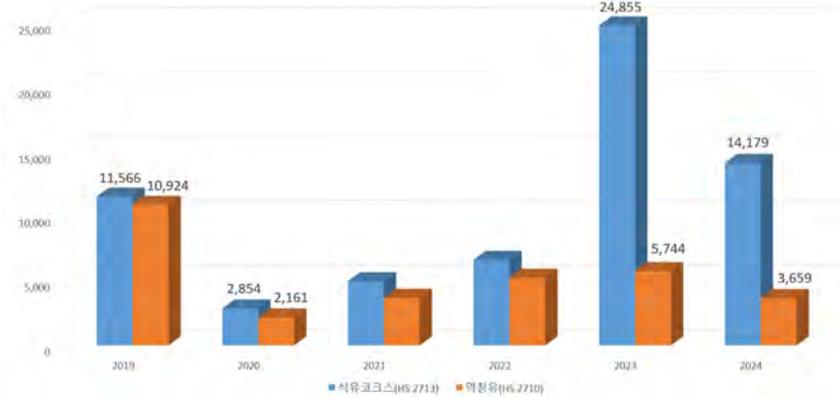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용도	HS4	금액	비중
1위	가발, 가수염, 가눈썹	6704	9,694	63.7	사람 머리카락	임가공 수출	6703	8,153	11.8
2위	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1,034	6.8	합성필라멘트 사 직물	내수, 임가공 수출	5407	3,608	5.2
3위	전기에너지	2716	972	6.4	대두유 (콩기름)	내수, 식료가공용	1507	2,706	3.9
4위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9108	643	4.2	메리야스편물	내수, 임가공 수출	6006	1,657	2.4
5위	합금철	7202	465	3.1	가구와 부품	건축자재	9403	1,554	2.3
6위	폴리브덴광과 정광	2613	443	2.9	도자제판석과 세라믹	건축 자재	6907	1,448	2.1
7위	기타(미술품, 수집품)	9804	239	1.6	필라멘트투우	내수, 임가공 수출	5502	1,305	1.9
8위	조제 점결제	3824	218	1.4	플라스틱 바닥갈개	건축용 내장제, 물류운반제	3918	1,301	1.9
9위	탄화물	2849	205	1.3	플라스틱 필름	농업용, 산업용	3920	1,282	1.9
10위	실크 생사	5002	160	1.1	고무타이어	물류 운송	4011	1,230	1.8
1~5월 상위 10개 품목 소계			14,073	92.4	1~5월 상위 10개 품목 소계			33,545	48.7

* 출처: 중국해관통계

한편,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석유코크스, 역청유 등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8월에 2만 1,191톤이 수입되었는데, 2018-2019년 1~8월 평균수입량(1만 7,591톤)보다 증가했다. 석유코크스, 역청유가 제철에 필요한 용도의 제품이 맞다면,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금속공업부문 삼화철(350%), 선철(270%), 압연강재(190%) 증산 보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러시아 무기수출에 따른 제철산업 활성화의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변화추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대중국 코크스류 수입 추이

(단위: 톤)



* 출처: 중국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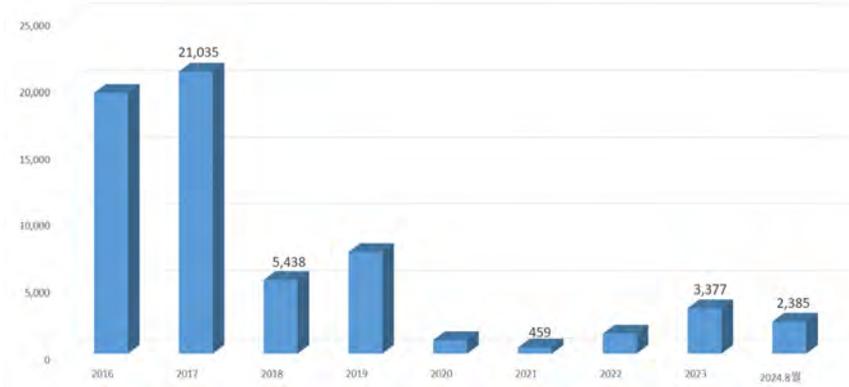
전략물자 수입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제재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략물자는 이중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이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를 HS 코드와 연계하여 수입액을 산출할 수 있다(전략물자관리원, 2018). 전략물자는 산업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수입액 분석은 북한의 산업활동의 재개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024년 8월 전략물자 수입액은 366만 달러(총 수입의 2.5%)로 2023년 8월 316만 달러 대비 15.8% 증가했다.³ 이중용도품목과 석유코크스류의 수입량 증가를 고려할 때 중화학공업·군수산업 생산량 역시 2020년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산업생산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3 전략물자는 수입액이 작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data의 등락보다는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한 품목이다.

〈그림 3〉 대중국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 추이

(단위: 만달러)



* 출처: 중국해관통계

2. 시장 환율과 물가

1) 시장 환율 변동

거시경제에서 가장 변동 폭이 큰 분야가 시장환율이다. 지난 7월 시작된 환율 변동은 매우 극적이다. 2024년 1월 대비 7월 시장의 달러와 위안 환율이 10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환율변동폭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다. 2024년 상반기 대중무역 재개에 따른 외화 수요 급증과 당국의 외화사용 통제 강화 등이 맞물려 외화의 시장거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대중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도 시장지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⁴

4 최근의 환율 상승이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했는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외화거래 통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래없는 호가의 반영일수도 있다는 분석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화폐교환설도 등장했다. 2024년 초, 새로운 화폐(동전)가 출시되었고,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2009년 화폐교환으로 알려지면서 외화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다는 것이다(『RFA』, 2024/08/27).⁵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24년 2월 초 조선중앙은행이 500원(0.05달러), 1천원(0.10달러), 2천원(0.20달러)권 동전을 새로 발행했고, 양강도에서 2024년초부터 “500원, 1천원, 2천원짜리 쇠돈(동전)이 출시”되었다. 새로운 화폐발행 과정에서 “쇠돈 교환을 화폐교환으로 착각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자 2월 9일부터 쇠돈 교환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등장하는 양강도 주민에 따르면 “비록 며칠 이긴 했지만 종이돈을 쇠돈으로 바꾸어 주던 2월 초, 2009년과 같은 화폐교환을 우려한 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장마당과 국영상점으로 몰리면서 학교와 병원, 상점과 같은 국가시설들이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시장지표의 불안정성이 원인이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내각의 재정상이 교체되었다.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4.6.28.-7.1.)에서 재정상이 교체되고 재정금융 부문의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사법검찰기관에 “재정금융부문에 강한 규율을 세우는 문제”와 “법적감시와 통제”를 요구한 것이다(『로동신문』, 2024/07/02). 이와 더불어 “현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관리해결책”과 “실현가능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제관리를 개선”을 주문하는 등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5 새로운 화폐는 현재 보급이 중단되었다(『RFA』, 2024/08/27).

〈그림 4〉 시장 환율 변동 추이

(단위: 1달러/1위안/북한원)



* 자료: www.asiapress.org

2) 시장 물가 변동

2023년 말부터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재, 쌀, 옥수수 가격이 모두 약 30%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쌀가격이 약 4,000원 내외에서 거래되었고, 코로나 종료 이후 5,000원 선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은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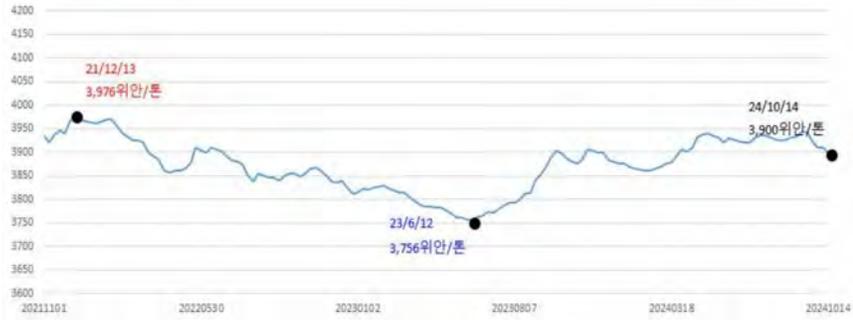
가격상승의 원인으로는 임금인상과 곡물의 국정가격 상승이 곡물가격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초 시범사업으로 방직공장 노동자 임금을 20배 이상 인상하고, 곡물의 국정가격은 대폭 인상(44~48원/kg에서 2,000원/kg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임금과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FA』, 2024/01/09).

〈그림 5〉 시장 곡물가격 추이

(단위: 1kg/북한원)



〈그림 6〉 중국 최근 3년간 도매가격 추이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곡물시장동향(2024.10.14.~10.18.)”(2024/10/29),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www.nongnet.or.kr) > 아카이브 > 해외 분석 보고서 > 국제 곡물 동향].

* 주: 쌀(동북미, 표준1등급, 국제3등급), 주간 쌀 도매가격(위안)

Ⅲ. 산업 동향: 국내총생산액 1.4배 성장(2020 vs. 2023)

1. 금속공업, 성장률의 견인차?⁸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1.4배 성장의 근거로 북한은 ▲금속공업부문의 삼화철, 선철, 압연강재 생산이 각각 350%, 270%, 190% 성장했고, ▲공작기계 생산이 510%, ▲질소비료와 시멘트 생산이 각각 130%, 140% 증가했다. 금속공업의 철강재 증산은 공작기계 등 기계공업부문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⁸ 금속공업부문,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생산증가에 대한 평가는 이영훈·김일한(2024: 88-101)을 참조.

〈표 3〉 부문별 성장률: 2020 vs. 2023(%)

		2020	2023
국내총생산액		100	140
금속	삼화철	100	350
	선철	100	270
	압연강재	100	190
기계	공작기계	100	510
화학	질소비료	100	130
건설건재	시멘트	100	140

* 자료: 2023년 실적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 발표내용

전원회의 보도는 또한 2023년 과제인 12개 중요고지의 목표가 “모두 완수 또는 초과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 금속공업부문은 2022년 대비 ▲압연강재 102%, ▲유색금속 131%(비철금속, 전기아연 140%, 연 121%, 마그네슘크링카 104% 등) 성장을 발표했다. 기계공업부문의 성과로는 ▲전동기 220%, ▲변압기 208%, ▲베어링 121%를 제시했다.

2020~2022년 북한의 금속공업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인 3중고(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실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동신문』, 2023/01/19). 반면에, 2023년 금속공업은 전년대비 높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로동신문』, 2023/12/13). 김책제철련합기업소(김철)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황철)는 산소열법용광로 건설과 기존 설비의 정비보강에 주력한 결과(『로동신문』, 2022/02/22), 2023년 김철은 전년 대비 선철 1.3배, 압연강재 1.4배를 증산했고,⁹ 황철은 2023년 1/4분기 선철과 압연강재 생산능력이 전년대비 각각 1.3배, 1.5배로 성장했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23/04/07).

종합하면, 전원회의가 제시하는 2021~2023년 기간에 금속 및 기계공업에

9 『로동신문』, 2023/12/13; 김철의 철강제 증산실적은 2018년 대비 선철과 압연강재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로동신문』, 2023/11/08).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보도에 등장하는 금속공업부문의 뚜렷한 실적의 이면에는 당국의 경제 정책에 힘입은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했다. 2013년부터 “경제발전의 쌍기둥”으로 “금속과 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전략을 공식화하고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로동신문』, 2013/08/25). 금속공업부문의 ‘주체철생산체계 완비’와 화학공업부문의 ‘비료 및 기초화학제품’ 생산을 독려했다.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이후의 금속 및 화학공업에 대한 주문이 더욱 절실해졌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2019년 “정면돌파전” 등 외부변수에 대응하면서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수정되었고, 특히 금속공업 성장에 대한 당국의 요구는 더욱 빈번해졌다.¹⁰

2.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증산요인

김철의 증산요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설비증설과 생산방식 변경 ▲원료와 연료조달 ▲과학기술개발과 사회주의경쟁 등을 꼽을 수 있다.

설비증설과 생산방식 변경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단위인 김철이 코크스에 의한 제철방식 대신 산소열법용광로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주체철” 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와 2기의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가 최근 연이어 건설되고 있다.¹¹

10 “자립경제의 쌍기둥”은 2020년 등장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06/08.

11 에너지를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는 爐 옆에 회전로를 설치해 폐가스를 사용하여 무연탄을 예열하면, 무연탄+산소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2배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연구한 주체철 공법 중 가장 공정이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주체철 공법은 입철공법 → 삼화철공법 → 산소배소구단광(산소용융환원법) → 산소열법으로 발전해 왔다. 강영실(2024).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주문으로 시작된 산소열법용광로방식의 제철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첫 준공식에 이어 2013년 9월 전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을 진행하는 등 관련 설비를 증설하면서 김철의 주체철 생산능력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로동신문』, 2023/11/08, 12/24, 12/28).

〈표 4〉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철 생산설비 및 방식 도입

구분	주요 내용
2023년 9월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첫 가동, 12월 20일 준공식 ¹²
2021년 7월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착공
2018년 9월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 ¹³
2016년 12월	김정은 위원장, 김철에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지시 ¹⁴

* 출처: 『로동신문』 보도.

제철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능력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료인 철광석 생산지인 무산광산의 공급능력이 강화되었다(『로동신문』, 2023/11/19). 이와 함께 2023년 10월에는 무산광산과 김철을 잇는 무산-청진사이의 10km구간 장거리정광수송관 교체공사와(『로동신문』, 2023/10/29) 여러 대의 조쇄용원추형파쇄기 설치와 1만 8000m 구간의 장거리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를 마무리했다(『로동신문』, 2023/11/07).

석회석의 주요 공급처인 청암광산도 생산능력을 높이고(『로동신문』, 2023/11/08) 청진화력발전소가 필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

12 『로동신문』, 2023/12/21, 12/22.

13 『로동신문』, 2018/09/26: 9월 30일에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화 대상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진행했다.

14 『로동신문』, 2023/03/11.

업소, 설비조립연합기업소, 강선산업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설비조립과 공장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로동신문』, 2023/08/07, 12/26).

추가로 김철의 강제생산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철광석 공급원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공급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무산의 주요 광산중 노천분광의 발파작업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모두 4차례 “50만산 대발파”가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24/10/09). 최근 노천분광의 발파는 2020년 40만산 대발파 2회, 2019년~2016년 각 1회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그림 7〉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노천분광 50만산 대발파



* 출처: 『로동신문』, 2024/10/09.

한편, 산소열범용광로의 경우도 코크스가 부분적으로 연료로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중국으로부터 석유코크스, 역청유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연료의 효율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체철 생산을 이유로 수입을 줄여왔던 코크스 수입이 2023년 이례적으로 증가해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¹⁵

15 석유코크스, 역청유의 용도가 제철용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제철용 코크스는 석탄을 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그림 8〉 대중국 석유코크스·역청유 수입 추이

(단위: 톤)



* 출처: 중국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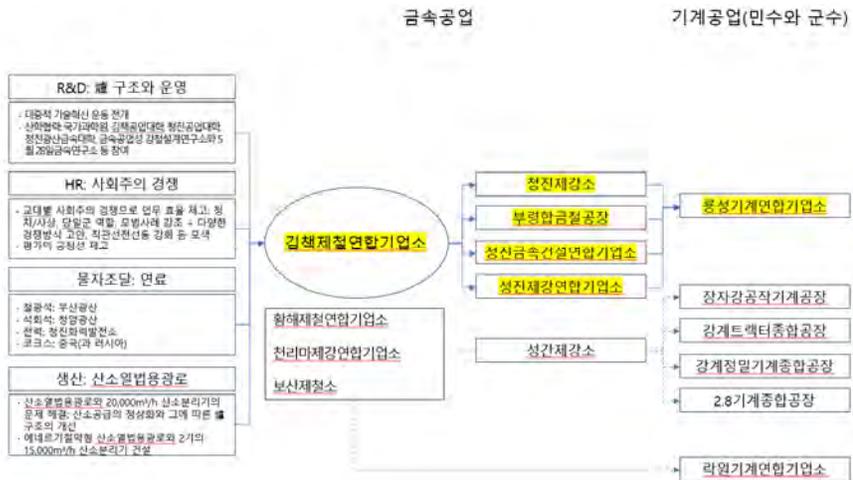
국가과학원, 김책공업대학, 청진공업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와 5월28일금속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개발도 김철의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로동신문』, 2023/12/23, 12/26). 산소열법용 광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공정검토조를 구성하고 시공과 운영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난제들을 풀고 있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23/12/22).

한편, 김철에서 생산된 선철과 강재는 2차 제철공장에 이어 기계공업부문에 이어지는 공급망(supply chain)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 등 금속공업성 산하 주요 공장파(『로동신문』, 2023/12/13)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계뜨락뜨르종합공장 등 주요 기계공업 단위 등이다(『서울평양뉴스』, 2024/05/07).

금속부문의 생산증가는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선, 2020년 대비 2023년 510% 성장한 공작기계와 2023년 계획 대비, 전동기 220%, 변압기 208%, 베어링 121% 증산 역시 강재의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이다. 강재는 공작기계(각종 선반, 금속절삭기

등)를 생산하고, 이들은 전동기, 변압기 등의 각종 부품, 기계/설비 등을 생산하는 기초소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동기, 변압기, 베어링 등은 동력을 전하/전달하는 기계들로서 자동차, 파쇄기, 벨트콘베어 등 민수뿐 아니라 군수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동신문』, 2024/01/27).

〈그림 9〉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공급망



* 출처: 『로동신문』 보도 정리.

금속 및 기계공업은 제반 공업, 농업, 운수,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건설자재, 농기계 및 관개시설 등 영향은 절대적이다. 특히 2023년 살림집 건설 실적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건설산업이 북한 산업별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강재 등의 증산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5〉 2022~2023년 살림집 준공 실적 추정

(단위: 세대)

구분	2022년*	2023년 ¹⁶	2024년 10월말 ¹⁷
합계	25,780	58,000	-
농촌살림집	9,980	41,600	41,600
평양 새거리 조성사업	10,800	11,400	-
검덕지구 살림집사업	5,000	5,000	-

* 출처: 2022년 실적은 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건설개발동향, 2023년 4/4분기』(2024: 9) 수록 추정치; 2023년, 2024년 실적은 『로동신문』 보도.

살림집 건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에서 설정한 경제건설의 기본 방향인 ‘인민경제 활성화와 인민경제 향상의 토대 구축’의 중심축이며, 12개 고지 중 하나이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10개년계획의 핵심분야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양의 효과를 유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향후 10년동안 전국 200여개 지방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20×10정책>도 금속 및 기계공업부문의 활성화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내각 관련부처와 군건설부대가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건설을 목표로 20개 시군에 옷공장,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등 생필품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김철, 황철 등 금속공업부문과 대안, 룡성 등 기계공업부문이 지방공업건설용 자재와 설비를 별도로 생산하는 등 정책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금속 및 기계공업부문의 성장은 농업기계화와 관개공사용 설비 생산에 직접

16 2023년은 2022년의 두 배 이상인 5만 8000여 세대 건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2/31.

17 전국적으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41개 시, 군에서 4만 1600여세대가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소식이 전해져 온나라 인민의 마음을 환희로 끌어받치게 하였다, “새농촌마을들에는 행복의 웃음소리, 결산분배장들에는 《풍년가》의 노래소리,” 『로동신문』, 2024/10/27.

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60-70% 과제가 제시된 이후 7년만인 지난 2022년 대규모 농기계생산과 공급이 시작되었다. 2022년 9월 5,500대의 농기계가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집중 공급되었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종합토양관리기계 등 군수부문이 생산한 농기계들이다. 2023년 9월에도 △트랙터,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등 10,000여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농기계 생산단위가 지방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등 대규모 중앙기계공장이 농기계생산에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생산이 부진했던 지방의 농기계전문 생산단위들도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주농기계공장, 함흥연결농기계공장, 청진시기계공장 등이 생산소식과 함께 공장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기계 생산전문공장인 금성트랙토르공장은 2022년 12월 1단계 개건공사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2단계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새로운 영농기계화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8월 금성트랙토르공장 현지지도에서 “농업하부구조 실태와 농업기술력평가자료 조사”를 주문하고,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망적인 농기계발전전략(10년계획)”을 예고했으며, 대규모《농기계공업발전-2023》를 개최했다.

〈그림 10〉 《농기계공업발전-2023》



* 출처: 『로동신문』, 2023/01/03.

농업 및 인프라부문의 강재와 기계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관개공사용 건설자재와 전동기, 변압기 등의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가뭄과 침수피해 대비용 대규모 관개공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대규모 태풍피해 발생이후 하천 및 해안방조제 등 보강이 거론된 결과 2023년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난방지용 인프라 개선사업과 함께 공을 들인 분야는 농업용 관개시설 정비사업이다. 특히 농업용 관개시설은 옥수수, 밀, 보리 등 발작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증산효과가 매우 크다. 관개시설정비, 양수장건설, 물관늘이기사업 등에 필요한 금속 및 기계공업부문의 지원은 2022년 본격화된 밀재배면적 확대정책에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견인할 수 있다.

〈표 6〉 관개체계 정비사업

2023년 ¹⁸	2024년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식량증산 성과에서 발작물의 증산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 • 20여만 정보 관개체계, 중소하천 바다파기 • 2만 4,000여km의 관개물길보수 • 1만 2,000여개소 지하수시설건설 및 능력확장 • 1,500여개소 관개시설 건설 및 보수 • 2,400여km 관늘이기공사 • 3,000여개소 양수장 새로 건설 • 가뭄피해지역 6만여정보 발관개망 일신 • 강령호담수화,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 결속 • 열두삼천리별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 • 황주긴등물길공사 마감단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추진 • 2024년 강하천정리와 제방보수,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 과제 기본 완수 • 23만 6,000여정보 논밭관개 공사 완결 • 1만 6,700여km 물길건설 및 보수 • 7,500여개소 지하수시설 건설 • 2,100여개소 관개시설 건설 및 능력확장 • 3,500여km 관늘이기공사 • 4,000여개소 양수장건설 • 1,400여km 강하천정리 • 1,800여km의 제방보수 • 수십km의 해안방조제공사 완수

* 출처: 『로동신문』 보도.

18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 사회주의농촌진흥에서 실제적인 변혁을 안아온 자랑찬 성과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발관개공사를 비롯한 올해 관개건설목표 기본적으로 달성,” 『로동신문』, 2023/06/08.

금속 및 기계공업의 성장은 군수공업에도 양(+)¹⁹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제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하면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과업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 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km 전방 중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했다.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미사일발사 실험으로 실제로는 관련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한 국국방연구원은 미사일 실험 생산비용을 6.7억 달러로 추정하기도 했다(『뉴데일리』, 2022/09/03).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선박공업의 현대화를 과제로 제기하면서 ‘국방경제병진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로동신문』, 2024/02/02). 향후 군수공업의 일환인 조선산업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적 효과 역시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로동신문』, 2024/01/29). 북한의 군수산업 노동자가 약 200만명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23/09/15).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성된 전쟁특수(戰爭特需, Special demand for war) 역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화된 전쟁에 따라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러협력이 강화될수록 전쟁특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RFA』, 2023/12/21).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군수물자는 포탄과 군수공장 설비로 알려지고 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19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사회주의농촌진흥을 가속화하며 련이어 이룩되는 수리화의 변혁적성과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관개공사목표 앞당겨 수행, 전반적 관개체계의 완비를 위한 확실한 담보 마련,” 『로동신문』, 2024/06/12.

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탄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북한의 재고를 수입하고 추가 생산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무기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VOA』, 2023/09/22). 북한의 대러 포탄, 공장설비 수출은 러시아의 차르그라드 TV를 통해 전해졌다(『RFA』, 2023/12/21).

북러 군사협력은 2023년 9월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입증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양국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호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우선 순위가 러시아와의 관계로 규정했다. 전쟁특수의 대표적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경제 부흥으로,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 표현이 대표적이다.²⁰

따라서 최근의 경제실적은 러-우 전쟁에 따른 전쟁특수가 금속 및 기계공업²¹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쟁특수와 직접 관련 있는 산업은 금속, 화학 및 기계공업이며, 이는 2023년 북한의 경제실적 가운데 두드러진 성과를 과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화학은 화학공업에서, 무기 및 총포탄은 금속공업에서, 전투용 차량은 기계공업에서 생산된다. 이와 함께 산업용뿐 아니라 군수용 품목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공작기계,²² ▲동력을 기계에너지로 전환/전달하는 전동기, 변압기, 베어링 등의 부품 ▲각종 전자, 통신 제품 등은 기계공업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20 전후 일본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기뻐했다고 전해진다(『서울신문』, 2010/02/10).

21 금속공업은 금속공업을 금속의 제련·가공을 하는 제조업의 총칭이며, 기계공업은 산업용에서부터 가정용에 이르는 기계와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의 총칭이다.

22 공작기계(C2922)는 일반기계(C29)의 한 분야로 △금속비금속목재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스탬핑), 압형(프레스),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 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표 7〉 전쟁특수와 직접적 관련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산업	code	산업(중분류)	전쟁특수 관련 품목
화학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제1차 금속제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1) 전동기와 변압기*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14) 베어링* (C2922) 공작기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94) 전투용 차량제조

* 북한이 실적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분야

*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농업부문, “알곡생산 103% 변혁중의 진짜변혁”²³

농업부문은 김정은 시대 가장 공을 들인 산업이다. ‘고난의 행군’이 식량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은 정권 차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최근 들어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먼

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12/31.

저, 2022년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2023년에는 농업연구원을 농업과학원으로 기관의 위상을 격상했다.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내각부총리를 겸하도록 했다. 농업과학원 역시 분산되어 있던 농업과학연구소들은 통합관리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20년부터 농업정책을 ‘농업발전 5대요소’로 통합하고, 분야별로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농업부문 예산을 14.7% 대폭 증액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 영농과학기술정책 독려

먼저, 영농과학기술정책은 농업과학원 관리하에 육종, 품종개량, 선진 영농기법, 비료생산 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부터 농업위원회, 내각기관, 농업과학원,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과학농사추진조’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농사추진조는 기초농업과학 연구, 농업과학기술제품 개발과 함께 전문가들을 영농현장에 파견해 영농기법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과학농사에 대한 당국의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된다.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상인 ‘2.16 과학기술상’은 2012-2023년의 118개 수상 과제 중 농축수산부문 수상 과제가 17건으로, 에너지부문의 19건에 이어 2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변학문, 2023: 75-91). 또한 2012-2022년 『생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발표문 총 2,497편 중 ▲ 농림축산수산부문 1,679편, ▲생명과학부문 556편, ▲보건의료 259편이 수록되었다. 농림축산부문은 ▲곡물육종, 종자관리 181건, ▲수의방역 203건, ▲남새버섯특용작물 154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태희, 2023: 67-72). 『생물학』은 1960년에 창간한 북한 유일의 생물학 분야 계간 학술지이다.

〈표 8〉 농업발전 5대요소

분야	주요 과제
영농과학기술	① 육종, 품종개량 ② ICT 등 영농과학기술
농자재공급	① 종자/비료(화학/유기)/농약(화학/유기) ② 농기계, 비닐박막 등
농업 인프라	① 간석지개발, 토지정리 ② 물길공사, 저수지, 댐 등 인프라 정비
증산 영농	① 저수확지 증산기술, 기관·기업소 분양 ② 수확 효율화
증산 경쟁	① 증산경쟁 ② 분배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2019.12.28

2) 비료공급능력 향상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 공급능력 향상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소비료 2대 생산단위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2020년 이후 매년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완수하거나 초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⁴ 내각의 화학공업성은 새로운 질소비료생산공정건설 추진 중인데 원료, 전력, 건설, 기술공정 등을 계획하고, 농약가공 및 포장공정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²⁵ 2020년 5월 준공한 순천린비료공장은 최근까지 생산정상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인비료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⁶

24 흥남과 남흥은 2023년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에도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알려진다.

25 화학공업성 김철하는 2022년 6월 임명되었는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지배인 출신으로 2021년 8차 당 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에 선임될 정도 당국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26 순천린비료공장 조업 상황은 인정광 생산 광산의 동향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주요 인정광 광산인

비료산업 동향 중 최근 주목할 부분은 대규모 온실농장에 공급하는 액비료 생산과 공급 상황이다. 흥남액비료공장은 련포와 증평에 액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증평남새온실농장(2019.12월) 준공에 맞춰 2020년 준공해서 해마다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있다. 흥남액비는 동부 농장지대에 액비를 공급하고 있다.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액비료공장(2023.10월 준공)도 액비료 생산을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액비공장은 강동종합온실농장(2024.3월) 준공에 맞춰 공장이 준공되었고, 강동을 비롯해 서부 농장지대에 액비를 공급하고 있다.²⁷

영농자재 중 비닐박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는데, 2024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재료과학부 나노재료연구소는 기능성박막 제조에 성공했고, 2023년 인민경제계획 모범 수행 단위공동순회 우승기 수상단위인 강선비닐박막공장은 비닐박막과 수지제품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²⁸

3) 농기계 생산 공급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공급확대 정책의 주요 타겟은 수확 후 손실분의 절감이다. FAO 추정치의 적실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확 후 손실분을 줄이는 것이 식량을 증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FAO에 따르면 수확 후 손실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추수과정의 손실, ▲운반 및 탈곡과정의 손실, ▲포장 및 저장과정의 손실 등이다(FAO & WFP, 2003).

풍년, 영유, 증산, 쌍용, 동암광산 등이 8월 린정광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순천린비료공장에서 인비료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비료 공급사례로는 황해남도의 저수확지인 삼천군 탐평농장에서는 2023년 “린안비료를 정말 오랜만에 가득히 쌓아놓고 마음껏 포전이 시비”해 식량을 증산했다고 알려진다.

27 3대 화학비료중 생산체계를 갖추지 못한 칼륨비료생산 준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8 ▲농기계 생산 공급, ▲간석지 개발과 관개체계 정비의 구체적인 실적은 금속 및 기계공업 참조.

〈표 9〉 FAO, 수확후 손실분 추정

단위: 천톤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수확후 손실분	754	799	737	871	947	1,023
연간 총 생산량	4,801	5,150	4,722	4,170	4,529	4,889

* 주: 2020년 생산량은 2019-2021년 평균값.

* 출처: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각 연도.

2022년 5,500대, 2023년 1만 대의 농기계 생산 보급과 달리 2024년 농기계 정책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²⁹ 2024년 농기계정책은 ▲지방 농기계공장 생산 확대, ▲중국산 농기계 수입, ▲농업당국의 농기계 수리정비 관리 등 3가지 방향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계농기계공장, 충성호뜨락또르공장, 혜산청년광산, 혜산립업기계공장 등 지방공장이 트랙터와 탈곡기를 생산 보급했고, 락원기계종합기업소, 희천정밀기계공장, 평양베아링공장, 량책베아링공장,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강서분무기공장 등이 농기계 부품 및 분무기 등을 생산공급했다.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가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트랙터를 수입 공급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목격된다. 2024년 3월 량강도 혜산시에서 삼지연시와 대흥단군, 백암군 등지에 공급할 뜨락또르 전달 모임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100~1,000여 대의 중국산 트랙터가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RFA에 따르면 2024년 3월 초 혜산-장백다리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1,000대의 트랙터를 싣고 며칠에 걸쳐 타이어와 주요 부속품 등이 운송되

29 조선중앙통신 2024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농기계부문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 확대 사업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올해 계획된 농기계들과 배당식분무기, 발관개용뿌무개생산이 결속되었고, 뜨락또르부속품생산도 마감단계에서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된 농기계생산 규모는 확실치 않다.

었다는 것이다(『RFA』, 2024/03/06, 03/19). 보도의 진위를 떠나서 농기계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은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량강도 트랙터 전달모임



* 자료: 『조선중앙통신』, 2024/03/06.

한편, 농업위원회 주도로 전국의 농기계 수리정비가 진행되었다. 모내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연초에 주요 지역의 농기계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과 지방의 농기계작업소의 정비작업을 관리했다.

4) 저수확지 증산정책 강화

저수확지 증산정책을 강화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농업당국이 저수확지 증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식량 순증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3년 가을추수 이후 노동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식량작물 증산 사례의 대부분이 저수확지 관련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섬을 연결한 간석지),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간석지 농장), 평안

남도 증산간지대(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증산군, 신양군) 등 과거 대표적인 저수확지가 다수확농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평안북도 흥건도간석지의 수천정보 간석지논에서 “또 다른 흐뭇한 작황”을 자랑했다고 한다. 2024년에도 황해북도 저수확지인 은파군 강안농장과 금천군 월암농장 등이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2022년부터 본격화된 밀농사확대정책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올곡식(봄작물) 증산보도 역시 예년과 다른 보도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황해남도 은륜군 장련농장은 “올곡식이 너무도 잘되어 그것만으로도 한해 국가알곡수매계획을 큰소리치며 넘쳐 수행”했다는 것이다. 2024년에도 “레년에 없이 잘지은 밀, 보리농사”로 수확 및 수매 결산 마무리되었는데, 황해남도 봉천군은 생산계획을 초과완수했고, 평안북도 동창군은 계획의 2배이상 생산했으며, 함경남도 고원군 군내농장은 정보당 평균 1.3t이상 증수했다고 알려졌다. 대표적인 밀농사 지역인 평안남도 덕천시는 밀생산 계획을 230% 초과 수행하면서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갱신하고 국가알곡수매율 150% 이상 초과 수행했다는 것이다. 황해북도 황주군도 생산계획을 2배이상 초과 수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증산의 이유는 ▲관개체계 정비 ▲농기계 공급 ▲비료공급 확대 ▲박막 등 농자재공급이 늘어나 생산량을 늘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³⁰

밀농사 실적의 이면에는 재배면적 확대정책이 뒷받침되었다. 2024년에는 전국의 밀재배면적이 123% 확대되었다. 전년대비 1만 5천여 정보, 2022년 대비 3만 5,600여 정보가 확대되었다. 황해남도는 전년대비 1.3배 증가, 특히 황해남도 강령군, 용진군, 황해북도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은 밀, 보리를 주작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재배 면적 확대방법은 두 가지인

30 FAO는 2021년 봄철 밀, 보리 추정생산량을 14만 6천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생산량을 22만 톤으로 추정했다. 생산량이 2021년 대비 50% 증가한 것이다.

데, 가을에 벼베기가 끝난 논에 밀모판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밀을 파종하고 이듬해 6월 말 수확하는 논앞그루 2모작법과 10월 밀을 심어 다음 해 6월 상순에 가을하며 뒤그루로 강냉이를 심어 9월 상순에 수확하는 밀 대 옥수수 두벌 농사법이 활용되었다.

5) 결산분배

최근 북한 언론은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낱가리를 쌓아놓고 농민들이 결산 분배를 진행하는 장면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결산분배 관련 기사를 2023년 41건, 2024년 10월 현재 26건을 보도하고 있다. 2022년 1건과 비교하면 매우 특징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농업현장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황해북도 은파군 강안농장 결산분배 행사



* 자료: 『노동신문』, 2024년 10월 10일.

북한 농장에서 식량을 분배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결산분배는 그중에서 세 번째 진행되는 행사다. 첫 번째는 국가의무수매 단계다. 국가의무수매분은 농장이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사용료와 토지, 물 등 인프라 사용료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종자, 가축사료, 농장 내 비생산부문 노동자 인건비, 농장이 운영하는 공동축사, 탁아소 등 시설관리 등에 지출되는 공동축적기금이 공제된다. 세 번째는 농민 1인당 260kg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현물로 분배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농장이 연간 계획을 초과하는 작물을 생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축적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농장의 총생산물은 이상의 4단계를 거쳐 분배된다.

〈표 10〉 농장의 생산물 지출내역 및 용도

구분	지출 내역		용도
1순위	국가의무수매몫	국가알곡수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및 토지, 물 등 인프라 사용료
2순위	자체조성곡 (생산용자체소비알곡)	공동축적기금	종자, 가축사료, 비생산부문 분배, 자체 건설비용 등
3순위	농장원분배몫	결산분배	노력일 기준 1인당 260kg
4순위	확대재생산용알곡	농장 저축	추가 생산용 비료, 농약, 부품 등 농자재
합계	총 알곡생산량		

* 출처: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에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2016.

6) 주곡의존도 감소 정책, 과채류 생산과 육류공급 확대

2019년(함북 중평), 2022년(함남 련포), 2024년(평양 강동)에 대규모 과채류온실농장이 건설되었다. 3곳 모두 군 비행장을 밀고 남새온실을 건설했으며,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대량의 과채류를 생산해 쌀, 옥수수, 밀 등 주곡의존도를 절감하고 식생활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표 11〉 대규모 남새온실농장 건설

	중평남새온실/양묘장	련포남새온실농장	강동종합온실
준공 조업	2019.12.	2022.10.	2024.3 준공 및 조업식
위치 및 공급지역	-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 - 함경북도 일대 공급	-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 함경남도 일대 공급	- 평양시 강동군 - 평양시 일대 공급
규모	- 전체면적, 200정보 (약 200만㎡) - 590세대 살림집	- 세계 최대 규모 - 전체면적, 310만㎡ (여의도 290만㎡) - 온실면적, 280만㎡ - 1,000여세대살림집	- 부지면적 260여정보 (약 260만㎡) - 연건축면적 약 120만㎡ - 1,050여동의 남새온실과 공공건물 및 살림집 - 련포대비 공사규모와 생산능력 약 두배 - 1,200여세대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구성	- 온실구역, 양묘장구역 - 반공룡식 2중박막 수경온실 300동, 토양온실 20동	- 온실동수 852동 - 수경:토양온실 비율 6:4 - 반공룡식2중박막수경온실 604동 - 반공룡식2중박막토양온실 230동 - 궁룡연결식 박막 토양온실 16동 - 양경사면 연결식 유리수경온실과 토양온실 각 1동	- 원통형 남새재배장치 (연간 13회 생산, 일반 수경재배의 3배 생산) - 반구형 유리수경온실 (연간 10회 생산) - 량경사면 연결식 유리수경온실 - 반공룡식 2중박막 수경온실 200여동 - 영양액공급 및 회수관로, 탄산가스공급 관로와 지열수, 열망관로를 비롯한 수백만m의 각종 내외부망 관로공사
정보화	- 종합적 기계화, 정보화 - 영양액공급과 온습도조절 기능 구축 -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경영관리 강화 - 지능형 온실관리체계 완성	-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 지능형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10여종, 수천대의 《설봉》계열 공업용 전자제품들과 《흰구름》 계열 공업용 소프트웨어 -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102》국산화	- 생산환경과 공정을 능동적으로 조종하는 지능형 통합생산체계 구축 - 련포보다 지능화, 집약화 수준이 한세대 발전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련포와 중평온실농장은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했고, 강동온실농장은 준공과 함께 생산을 개시했다. 통합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2024년 7월 평양 강동온실농장을 방문한 FAO 취동위 사무총장은 “북한, 식량안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FAO, 2024/07/17). 최근 평양시 택암지구(순안공항인근)에 새로운 남새농장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축산부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용 유제품을 공급하는 육아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염소 및 젖소농장을 증축하고 유제품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2022년말 어린이 영양상태평가지표에 따라 연령별 영양학적인 조사 결과 전해보다 3~6살 어린이들의 키와 체중이 증가하고, 키작은 어린이들과 설사증, 감기, 기관지염과 같은 발병률 감소했다. 또한 2023년말 어린이성장발육상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되었으며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날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황해북도 황주군에 대규모 광천닭공장이 준공하고 2월부터 평양의 상업봉사기지에 공급을 시작했다. 중구역,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식료품종합상점 등 상업봉사기지에서 고기와 알 등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부문에서는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신포시바다가양 식사업소건설하는 등 수산사업소 개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7) 2024년 식량작물 생산 103%?

북한은 식량생산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농업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농업분야의 정책 변화는 전방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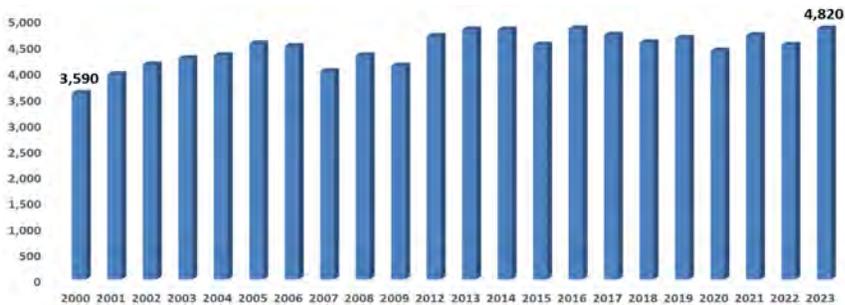
그러나 농업은 단기간에 증산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공업부문이 공장과 설비를 증설하고 노동력을 투입하면 나타나는 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없고, 태풍 등 자연 재해를 통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 농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 5대요소, 즉 과학기술을 통한 우량종자 개발,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공급능력 확대, 물길정비 등 관개시설 개선, 저수확지 증산과 생산의욕 고취 등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이후 지속되고 있는 증산정책은 더디지만 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생산량이 34% 증가했다.

2023년 경제계획 12개고지 중 첫 번째 과제인 농업생산량 103%가 “변혁중의 변혁”이라면 2024년에도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3년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20년 대규모 태풍피해 이후 2024년까지 농업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자연조건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3〉 농촌진흥청의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치



* 출처: 농촌진흥청, 각 연도.

IV. 2025년 전망: 제8차 당 대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1. 거시경제

북한경제 전망은 2025년이 5개년계획 마지막 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운영계획, 대외무역 등 거시경제정책은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추진해 온 극단적인 긴축재정정책이 2024년을 기점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 재정지출 증가율 3.4%로 예년의 절반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금속 및 기계공업부문 등 선행부문의 활성화와 건설, 농업부문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2025년 재정운영 계획은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이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폭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 정체상태인 거래수입금 증가율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B2C, B2B, B2G 등 국가 경제 전반의 공급체계 정비와 산업 부문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시장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성화가 계획경제와의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는 민간의 접경지 무역 개방 등 정책 조정 역시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대외무역은 장기화된 제재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2018년 수준의 무역 규모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8차 당 대회 결산을 위해 미진한 산업부문을 끌어올리고, 당면한 건설 및 농업 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현재의 임가공무역 중심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중국 측이 공개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무역 성장의 주요 변수로 러시아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규모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2.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관찰 포인트는 역시 금속, 기계, 화학공업과 건설부문이다. 금속 공업부문은 무산광산의 4회 대발파 등 공급망이 활성화되고 김철, 황철의 산소열법방식의 제철 능력이 향상되면서 기계공업 등 산업 전반의 연관효과를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계공업 또한 지방발전정책, 건설, 석탄 및 광산부문, 농업부문 등 기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능력 확보가 핵심 과제다. 2024년 기계공업부문 과제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2025년까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등 중요기계공장 현대화, ▲농기계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 추진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속 및 기계공업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경우,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은 새로운 비료생산공정 조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질소와 인비료의 생산성 강화와 칼륨비료 생산공장 건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접근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양국은 밀생산 및 수출에서 글로벌 top-tier이자 칼륨비료는 2, 3위 수출국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질소비료 세계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칼륨비료가 절실한 북한에 생산공정 관련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비료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산업에 해당한다.

10년 장기계획의 지방발전정책,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등 식량증산과 농촌 개발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8차 당 대회 슬로건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산업은 관광이다. 2024년 말 삼지연관광 개방을 예고하고 있고, 2025년 5월 준공예정인 원산갈마가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광산업의 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삼지연 관광을 위

해 중국과의 세관도 정비했다. 2023년 3월 이후 북한 삼지연시 쌍두봉세관과 중국 길림성 안투(安圖)현의 쌍무평(雙目峰)통상구(세관)가 시설과 도로를 증설했다. 특히 중국 측 쌍무평통상구는 세관시설을 3.3배 증축하고 대형트럭과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했다. 삼지연공항 역시 증설중이다.

러시아와의 전방위적인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협력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2024년 초 러시아가 제공한 밀종자를 평양과 북부지방에 시범파종했고, 남새농사협력을 새롭게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순안공항 인근 택암지구에 남새온실농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수산분야에서는 러시아 해상경제지역의 어업권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가 협의되기도 했다. 그 외에 과학기술, 대외무역 등 다방면의 복리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영실. 2024, “주체철 생산과 금속공업 현대화 동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내부 세미나 자료, 3월 18일).

박승갑. 2016,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변학문. 2023, “2.16과학기술상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적인 자력갱생’ 현황,” 『북한연구학회 2023년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12월 15일): 75-91.

이영훈·김일한. 2024, “북러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8기 9차 전원회의의 2023년 경제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2024년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6월 28일): 88-101.

이태희. 2023, “김정은 집권기 북한 『생물학』 저널 연구동향 분석,” 『북한연구학회 2023년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12월 15일): 67-72.

전략물자관리원. 2018, “전략물자관리원 HSK 연계표 정보 20181126,”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

통일연구원. 2023, “북한 제8기 제9차 당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Online Series』, CO 23-42, 12월 31일: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중국곡물시장동향(2024.10.14.~10.18.),” 10월 29일,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www.nongnet.or.kr) > 아카이브 > 해외 분석 보고서 > 국제 곡물 동향].

『뉴데일리』. 2022/09/03, “올해만 9,600억원… 北 미사일 비용 알려주자, 주민들 화들짝 ‘분통’.”

『로동신문』. 2013/08/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담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선군절에 즈음하여 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에 준 담화.”

_____. 2018/09/26,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진행.”

_____. 2020/06/0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_____. 2022/02/22,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실현을 위한 투쟁 강력히 전개.”

_____. 2023/01/03.

_____. 2023/0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기한 내각 사업보고.”

_____. 2023/03/11, “김철의 붉은 노을 - 북방의 철의 기지에 약동하는 총진군의 숨결을 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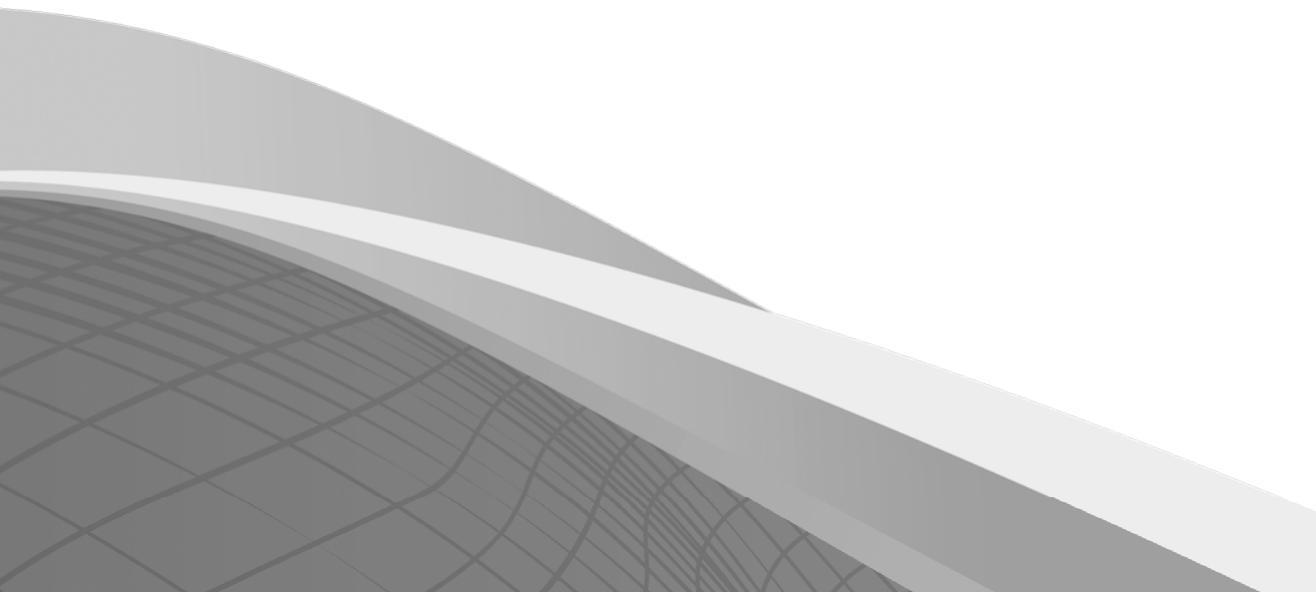
- _____. 2023/03/29, “인민경제 주요전구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탐구전의 불길.”
- _____. 2023/04/07, “자립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다지며 계속혁신, 연속공격.”
- _____. 2023/06/08,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 사회주의농촌진흥에서 실제적인 변혁을 안
아온 자랑찬 성과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발판개공사를 비
롯한 올해 관계건설목표 기본적으로 달성.”
- _____. 2023/08/07, “힘있는 건설부대의 영예를 떨쳐간다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
대상공사에 참가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 _____. 2023/10/29, “정비보강계획수행에서 이룩된 로력적성과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에서 1만여m구간의 장거리정광수송관 교체공사 결속.”
- _____. 2023/11/07,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여러대의 조쇄용원추형파쇄기 설치 및 1
만 8000m 구간의 장거리벨트 콘베아벨트 교체공사 결속.”
- _____. 2023/11/08, “주체철생산체계의 생활력 과시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
범용광로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조업당시에 비해 선철, 압연강재생산을 2배이상
끌어올렸다.”
- _____. 2023/11/19, “우리 당의 정비보강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 힘있게 과시 - 인민경
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 _____. 2023/12/13, “철강재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드높은 열의 - 금속공업부문에서 지난
해에 비해 높은 생산장성률을 기록.”
- _____. 2023/12/21, “주체조선의 활기찬 전진기세를 과시하는 자립의 창조물 김책제철
련합기업소 에너르기절약형산소열범용광로와 1만 5,000m³/h 산소분리기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 _____. 2023/12/22,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자립적야금공업발전의 새 경지를 개척한 자
랑찬 성과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이 훌륭히 일떠선데 대
하여.”
- _____. 2023/12/23, “과학기술력의 증대에 당결정관철의 관건이 달려있다 - 과학기술발
전을 위한 올해의 사업정형을 놓고.”
- _____. 2023/12/24, “우리 땅에서 우리의것을 가지고 못해낼 일이 없다.”
- _____. 2023/12/26, “당중앙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정비보강사업 힘있게 추진, 여
러 주체화대상공사 기본적으로 결속 - 금속공업부문에서.”
- _____. 2023/12/28, “자립, 자력의 역센 신념이 안아온 김철의 붉은 노을 - 우리 식의 새
로운 주체철생산체계확립으로 확고한 장성궤도에 올라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전변을 가슴에 안아보며.”
- _____. 2023년/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4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

- 게 싸워나가자.”
- _____. 2024/01/27, “철강재증산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지켜간다. 굴지의 철광석 생산단위들에서.”
- _____. 2024/01/29,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 _____. 2024/02/0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 _____. 2024/06/12,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사회주의농촌진흥을 가속화하며 련이어 이룩되는 수리화의 변혁적성과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관개공사목표 앞당겨 수행, 전반적 관개체계의 완비를 위한 확실한 담보 마련.”
- _____. 2024/07/0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_____. 2024/10/09, “올해 네번째로 되는 50만산대발과 성공적으로 진행 -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 _____. 2024/10/27, “새농촌마을들에는 행복의 웃음소리, 결산분배장들에는 《풍년가》의 노래소리.”
- 『서울신문』. 2010/02/10, “[한·일 100년 대기획]〈7〉 일본 패망과 한국전쟁.”
- 『서울평양뉴스』. 2024/05/07, “‘기계를 낳는 어머니공장’ 룡성기계련합기업소.”
- 『연합뉴스』. 2023/09/15, “북한 군수산업 200만명…러 무기주문 맞춰내고 경기부양 가능.”
- 『조선중앙통신』. 2024/03/06.
- Asia Press (www.asiapress.org).
- FAO and WFP. 2003,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AO. 2024/07/17, “FAO Director-General visits Mongolia and DPRK reaffirming FAO’s commitments to supporting sustainable agrifood systems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director-general-visits-mongolia-and-dprk-reaffirming-fao-s-commitments-to-supporting-sustainable-agrifood-systems-transformation-in-developing-countries/en>
-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북한건설개발동향, 2023년 4/4분기』.
- 『RFA』. 2023/12/21,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지원된 북한 조립식 군수공장이란?.”
- _____. 2024/01/09, “북, 노동자월급·식량배급가격 시범적 동시 인상.”
- _____. 2024/03/06, “김정은이 농장에 보낸 ‘트랙포르’ 선물은 중국산.”
- _____. 2024/03/19, “북, 중국산 트랙터 1000대 수입.”
- _____. 2024/08/27, “북, 새로 출시한 동전 교환 왜 멈췄나?”
- 『VOA』. 2023/09/22, “[뉴스 동서남북] 북한 군수산업 “러시아 특수?.”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외교: 현황과 분석, 평가

김 상 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은 대남 및 대외관계 관련하여 정책적 입장과 과제를 밝혔다(『로동신문』, 2021/01/09).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인지 대결의 악순환을 지속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남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남한에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반입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 여부에 따라 북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강대강, 선대선 원칙의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은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뒷받침한다는 방향에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세력에 강대강으로 맞서 발전권을 수호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자주세력과 연대로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제8차 당 대회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서로 적으로 규정한 채 대결적 입장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북전단과 대남오물풍선이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미 간에도 어떤 소통도 없는 상황이며,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역이라며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서방 여러 국가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를 해제한 2023년 8월 말 이후 활발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미 연대를 도모하면서 실익을 추구하는 양상이다. 특히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가장 뚜렷한 외교관계의 진전이 있었다. 중국과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상대적인 냉각 기류가 관측된다. 베트남, 벨라루스, 라오스, 이란 등과 양자외교, 그리고 다자외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8차 당 대회 이후 외교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최근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대남·대미 관계 등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평가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을 간략히 제시한다.

II. 외교정책 기조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대립 심화 등 국제관계의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되었다고 보며, 또한 국제질서가 특정한 강대국이 주도할 수 없는 '다극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고 인식한다(김상기, 2024c).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신냉전 구도 형성을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했으며, 미국의 편가르기식 대외정책과 추종 세력의 강권·전횡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주변 세력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함과 더불어 미국 주도 일극 세계로부터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의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패권주의에 있다는 입장을 전쟁 발발 직후부터 견지해왔다(『조선중앙통신』, 2022/02/28). 이처럼 북한은 신냉전으로 전환과 다극화 추세를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주된 특징으로 인식하며, 그 변화와 관련된 불안정과 긴장, 충돌의 주된 원인이 미국과 서방에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신냉전'과 '다극화' 추세라는 국제정세 변화 환경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국위 제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추구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이다(『로동신문』, 2023/01/01). 이러한 방침 속에서 드러난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를 '신냉전·비서방 외교 전략'이

라 칭할 수 있다(김상기, 2024a). 이 전략은 ‘신냉전’ 구도와 ‘다극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미국에 편승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하는데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 등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반미연대의 강화가 하나의 과업으로 제시되었다(『로동신문』, 2023/06/19). 신냉전·비서방 외교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최근 북한의 외교정책 기조이다.

외교 전략의 목표로서 북한이 밝히는 국권 수호, 국익 사수, 국위 제고는 실질적으로 △체제 안전의 강화 △경제적 협력과 이익의 증진 △외교적 고립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김상기, 2024a). 첫째, 북한은 체제 안전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해온 핵·미사일 개발 등 자체적인 국방력 신장, 즉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에 더해 동맹 등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의 강화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둘째, 제재의 한계를 넘어 대외경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인 고립 상태를 탈피하여 국가의 위신을 제고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중 경쟁과 미러 대립, 러-우 전쟁 등 국제관계의 변화가 위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Ⅲ. 비서방 관계: 대러, 대중, 기타 대외관계

북한의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름까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2020년 1월 말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북한의 외교는 더욱 고립되고, 북중무역의 대폭 축소로 경제 상황도 악화되었다. 그러나 2023년 9월 이

후 최근까지 북한의 외교는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정한 성과와 한계가 함께 관측된다.

1. 대러 관계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2023년 8월 말 국경봉쇄 해제 직후인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회담에서 고위급 왕래와 여러 분야의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양국 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으로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확대해나가는 데 합의했다(『로동신문』, 2023/09/14). 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경제, 군사, 교육, 체육, 문화, 보건, 정보, 법무, 행정안전, 사회친선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와 정부 분야별 대표단, 지역 대표단 또는 예술단, 사회친선 관련 대표단 등의 방북이 23차례 이루어졌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정부 분야별 대표단, 청년·청소년 대표단 등의 러시아 방문도 22차례 진행되었다. 2024년 2월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인의 북한 단체 관광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국경봉쇄 해제 이후 불과 1년 3개월 만에 북러 양자 외교 및 교류·협력의 빈도, 범위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기에도 뚜렷이 크게 확대되었다.

북러 외교관계의 진전에서,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조약의 내용은 말 그대로 ‘포괄적’이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약속한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제4조)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할 때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동맹 △(제6조 및 제7조) 다극적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한 협력과 국제기구 가입 협조 △(제9조) 식량 및 에너지 안

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협력 △(제10조) 무역, 투자, 자유경제지대, 그리고 우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의 과학기술 관련 교류·협력 △(제11조) 지역 간 경제 및 투자 협력 △(제12조) 농업, 교육, 체육, 문화, 관광, 환경 및 자연재해 관련 협력 등을 망라한다(『로동신문』, 2024/06/20). 이 조약에서 합의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미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역사상 첫 대규모 전투병 해외파병도 제4조 군사동맹 조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표 1〉 북한의 대러 외교·교류: 2023.9.1. ~ 2024.11.30.

시기	장소	분야	내용
'24.11	평양	군사	러 연방군사대표단 방북, 국방장관 회담
	평양	체육	러 체육상 일행 방북, 체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협의
	러시아	외교	북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 방러, 모스크바시와 교류·협조 합의
	평양	군사	러 연방무력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대표단 방북
	평양	경제 등	러 연방정부대표단 방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러시아	외교	북 외무상 방러, 외무장관 전략대화
'24.10	평양	과학기술	러 대표단, 북러정보기술제품전시회-2024 참가 및 교류
'24.09	러시아	외교	북 외무상 방러, 외무장관 회담
	평양	외교	러 안전이사회 서기장 쇼이구 방북, 김정은 접견 등
'24.08	평양	경제	러 공업무역성 부상 등 전문가대표단 방북, 경제협력 논의
	평양	교육	러 연해변강 교육일꾼 대표단 방북
'24.07	러시아	경제	북 전력공업성대표단, 전력부문실무그룹회의 참여
	강원도	사회친선	북러 소년 친선 야영, 청소년 교류
	평양	법무	러 연방최고검찰소 소장 방북, 검찰기관 간 교류
	평양	군사	러 군사대표단 방북, 분야 협력
	러시아	군사	북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꾼 대표단 방러
'24.06	평양	외교	북러 정상회담, 동맹조약 체결
	러시아	행정안전	북 사회안전성 대표단 방러, 분야 협력
	러시아	행정안전	북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 방러
	평양	사회친선	러 청년친선대표단 방북, 친선 교류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시기	장소	분야	내용
'24.05	평양	의회외교	러 연방평의회대표단 방북, 의회 교류
	러시아	과학기술	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 방러, 과학기술분과위 참여
	러시아	사회친선	북 라선시인민위원회 대표단 방러
'24.04	러시아	사회친선	북 조선청년친선대표단 방러, 친선 교류
	러시아	경제	북 임업성 대표단 방러, 임업분과회의의 참여
	러시아	경제	북 농업위원회 대표단 방러
	평양	문화	러 모스크바동물원 대표단 방북, 동물기증
	러시아	보건	북 보건대표단 방러
	러시아	교육	북 교육성 일꾼 대표단 방러
'24.03	러시아	경제	북 정부 경제 대표단 방러
	평양	정보	러 대외정보국 대표단 방북, 분야 협력 회담
	평양	문화	러 문화성 대표단 방북
	평양	문화	러 마리인스키극장 연해변강분극장예술단 발레 공연
	평양	경제	러 연해변강 대표단 방북, 대외경제상과 회담
	러시아	사회친선	북 조선청년대표단 방러, 친선 교류
'24.02	러시아	경제	북 북러수산공동위원회 대표단 방러, 수산업협조공동위 참가
	러시아	체육	북 체육성 대표단 방러, 교류의정서 조인식
	러시아	외교	북 조선로동당 대표단 방러, 고위급 교류
	러시아	경제	북 농업기술대표단 방러
'24.01	러시아	외교	북 정부대표단 방러, 외무장관 회담, 다방면 협력
'23.12	평양	경제	러 연해변강 대표단 방북, 대외경제상과 회담
'23.11	평양	경제 등	러 연방정부대표단 방북, 고위급회담, 무역·경제·과학 등 협력
'23.10	평양	외교	러 외무상 방북, 외무장관 회담
'23.09	러시아	외교	북러 정상회담
	평양	문화	러 알렉산드로브 명칭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 방북

* 이 자료는 김삼기(2024a)의 자료를 최신판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필자가 전수 조사하여 정리한 것임.

** 이 자료는 직접 방문, 대면 교류만 포함하며, 축전 교환 및 화상회의의 등 비대면 교류 그리고 관광 및 국제체육경기 참가는 제외함.

*** 이상의 내용은 이 글의 <표 2>, <표 3>, <표 4>에도 적용됨.

북러관계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전략적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선 체제안전 강화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북러 군사동맹은 그 자체로 북한의 안전을 강화하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반대급부로 제공될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 기술적 지원도 정찰위성을 비롯한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도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적지 않은 실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이미 대북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포탄 등 무기 지원 및 전투병 파병의 대가로 적지 않은 현금이 북한에 제공될 수 있으며, 원유 등 에너지와 식량 자원도 상당한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부족 문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쟁 중인 러시아의 해외투자 여력 부족, 북한과 인접한 연해주 지역의 낙후한 인프라(물류 등)와 빈약한 산업, 적은 인구와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러 경제협력의 북한의 산업 발전 및 교역 확대에 대한 기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장호·이희서, 2024; 김상기, 2024a).

2. 대중 관계¹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2024년 75주년을 맞는 양자 외교관계의 발전과 친선 교류, 전략적 협력 강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2024년 1월에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중친선의 해’ 운영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양자관계 확대·발전 관련 논의를 하였다. 또한 2024년 3월 조선노

1 이 절의 내용은 김상기(2024d)의 일부를 수정, 재정리한 것임.

동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으며, 4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조락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중친선의 해’ 행사를 함께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과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축전도 8차례 오갔으며, 축전에는 양자 친선협력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포함되었다.

〈표 2〉 북한의 대중 외교·교류: 2023.9.1. ~ 2024.11.30.

시기	장소	분야	내용
'24.04	평양	외교	중 정부 대표단 방북, ‘조중친선의 해’ 행사, 회담 등
	평양	문화	중 예술단 방북, ‘조중친선의 해’ 공연 및 교류
'24.03	중국	외교	북 조선노동당 대표단 방중, 고위급 교류
'24.01	평양	외교	중 외교부 대표단 방북, 차관급 회담
	중국	체육	북 체육성 대표단 방중, 체육교류의정서 조인
	평양	문화	중 요녕성문화대표단 방북, 친선 설명절행사 참가
'23.12	중국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방중, 차관급 회담
'23.09	평양	외교	중 당·정부 대표단 방북, 공화국창건 경축행사 참가

* 출처: 〈표 1〉과 동일, 김상기(2024d) 참조.

이처럼 북중관계가 큰 틀에서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상대적인 냉각 기류도 감지된다. 우선 2024년 4월 이후 11월 30일 현재까지 외교 차원의 방문·교류가 부재하다. 또한 공개된 양자 간 고위급 협의 내용과 다르게 교류·협력의 확대·강화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는다. 북러관계의 급진전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올해가 북중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이 되는 ‘조중친선의 해’임을 감안할 때, 양자 간 외교 및 교류·협력의 ‘조용함’은 매우 어색하다.

최근 북중관계의 상대적인 냉각 기류 형성에 대해 추정 가능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대북제재 및 교류·협력 범위·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원칙하에 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상기, 2024a). 2023년 북중무역 총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82.7%까지 회복되었으나, 그 이상 확대되지 못했고, 2024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2023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했다.² 이 결과는 대북제재를 의식하는 중국의 입장을 드러낸다. 더욱이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제재와 무관함에도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추정 가능한 이유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이다. 북러 군사협력은 신냉전 및 진영화에 반대하는 중국에 우려 사안일 수 있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이 북한의 핵무력 신장으로 이어져, 중국이 경계하는 한반도의 불안정성 증대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반도 긴장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각종 미사일과 정찰위성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북한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제재 준수’ 입장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엔 상당한 제약 또는 한계점이 될 수 있으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이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우려는 북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3. 기타 국가 관계³

북한은 지난해 8월말 국경봉쇄 해제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도 여러 국가와 외교 확대,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해 왔다. 그 대상은 대부분 미국에 편승하지 않거나, 미국의 대외전략에 비판적인 비서방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벨라루스, 라오스, 이란, 몽골 등이다. 특히, 북한은 베트남과 2024년

2 중국 해관총서 자료 참조. <http://english.customs.gov.cn/> (2024/10/31).

3 이 절의 내용은 김상기(2024c)의 일부를 수정, 재정리한 것임.

초반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며, 양자 교류·협력 확대 및 친선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벨라루스와도 평양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으며, 양자 친선협조 관계의 확대·강화에 관한 협의 및 국제정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북한의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여 무역 등 경제협력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2024년 9월 박명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은 동남아 4국(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을 순방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표 3〉 북한과 기타 국가의 양자 외교·교류: 2023.9.1. ~ 2024.11.30.

시기	국가	장소	분야	내용
'24.10	베트남	평양	외교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 방북, 양자 차관급 회담
	일본	평양	학술	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방북
'24.09	베트남	베트남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방문, 차관급 회담
	라오스	라오스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방문, 차관급 회담
	태국	태국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방문, 차관급 회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방문, 차관급 회담
'24.08	몽골	평양	학술	몽골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방북
'24.07	벨라루스	평양	외교	벨라루스 외무장관 방북, 장관급 회담
'24.06	베트남	평양	행정	베트남公安성 대표단 방북
'24.04	이란	이란	경제	북 대외경제성 대표단 이란 방문
	벨라루스	평양	외교	벨라루스 외무차관 방북, 차관급 회담
'24.03	베트남	베트남	외교	북 조선노동당 대표단 베트남 방문, 고위급 교류
	라오스	라오스	외교	북 조선노동당 대표단 라오스 방문, 고위급 교류
	몽골	몽골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몽골 방문, 양자회담
'23.09	멕시코	멕시코	학술	북 평양기계대학, 인터아메리칸대학과 친선협조 합의

* 출처: 〈표 1〉과 동일, 김상기(2024c) 참조. 재일본 조선인 방북 사례는 제외.

〈표 4〉 북한의 다자 외교(국제회의·행사 참여): 2023.9.1. ~ 2024.11.30.

시기	장소	분야	내용
'24.10	러시아	체육	북 체육성 대표단, 국제체육포럼
	멕시코	기타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28차 토론회(약 50개국 참여)
'24.09	러시아	외교	북 외무상, 제4차 유라시아여성포럼 및 제1차 브릭스여성포럼
	인도	교통	북 민용항공대표단, 제2차 아시아태평양 민용항공부문 상급회의
	인도	체육	북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제44차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총회
'24.08	평양	학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국제연합 대표단 방북
'24.06	러시아	체육	북 체육성 대표단, 브릭스 플러스 체육상 회의
	스위스	보건	북 보건상 등 대표단, 세계보건기구 총회 제77차 회의
'24.04	평양	문화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국제행사), 각국 예술인 공연
	세네갈	기타	북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 국제농업·식물근로자동맹 제5차 대회
	평양	학술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개최(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약 20개국 참여)
'24.03	러시아	기타	북 조선청년대표단 세계청년축전 참가(약 100개국 참여)
	브라질	기타	북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세계직업연맹위원장자사회 정기회의
'24.02	케냐	환경	북 국토환경보호상 등 대표단, 유엔환경계획총회 제6차 회의
	러시아	IT	북 정보산업상 등 대표단, 유라시아정보기술포럼
	러시아	기타	조선노동당 대표단, 현대신식민주의행위반대투쟁지지자포럼 제1차 회의
'24.01	우간다	외교	북 외무성 대표단, 제19차 비동맹운동정상회의, 제3차 개발도상국정상회의
'23.11	러시아	문화	북 문화성 대표단, 제9차 국제문화포럼(약 80개국)
'23.10	러시아	체육	북 체육성 대표단, 제11차 국제체육포럼
'23.10	멕시코	기타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27차 토론회(약 40개국)

* 출처: 〈표 1〉과 동일, 김상기(2024c) 참조.

북한의 다자외교도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24년 1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우간다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비동맹운동정상회의 및 제3차 개발도상국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생존권과 발

전권 침해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불균형적인 국제 발전 격차를 지적하고 남남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 2024/01/22, 01/24). 이외에도 북한은 2024년 2월과 6월, 유엔환경계획 총회 및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2024년 9월에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총회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용항공부문 상급 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는 등 다방면에서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2024년 브릭스(BRICS) 회의에 두 차례 참가했다는 점이다. 6월 체육성 대표단이 브릭스 플러스 체육상 회의에 참가했고, 9월 최선희 외무상이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가하였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은 어느 일방이 회원인 국제기구에 다른 일방이 가입하는 것에 협조하고 지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국제정치경제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브릭스에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가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 북한이 추진하는 양자, 다자외교 활동은 외교적 고립의 탈피(혹은 대러·대중 외교 의존 완화)와 경제협력 모색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유럽의 벨라루스, 중동의 이란과 양자 외교, 아프리카에서의 다자외교, 국제기구 회의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의 탈피 및 대러·대중 외교 의존 완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자 외교의 경우 러시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제재라는 제약 요인이 뚜렷하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은 올해 4월 이란 방문 시 자동차 산업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이른 시일 내에 제재를 넘어 산업협력이 성사될 것이라 보기는 쉽지 않다(하채림, 2024). 여러 국가가 북한과 교류·협력 증진에 원론적 공감을 표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제재 위반을 무릅쓸 정도로 북한과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할지 미지수이다.

IV. 대남·대미 관계

1. 대남관계

위에서 검토한 비서방 여러 국가와 달리 대남관계에서는 어떤 교류, 대화도 없었다.⁴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남한에 관계개선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반입 중단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 관련한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을 유지하고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을 말하지 않고, 남한 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핵선제공격 조건을 법제화하고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을 추진하는 등 위협적 언사와 행동을 지속했다(김상기, 2024b). 특히,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대남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로동신문』, 2023/12/31). 후속 조치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 대화·협력 기구를 폐지했으며,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정책을 전환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이유 혹은 배경은 복합적이다.⁵ 첫째, 북한이 직접적으로 밝히는 이유와도 관계된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을 들 수 있다. 그 경계심은 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남북 간 경제·군사력 격차 확대 인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남한과 별개의) 강국 건설의 의지를 담은 ‘우리 국가

4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5년 11개월째 중단 상태이며,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래 역대 최장기 중단 상황이다.

5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김상기(2024b) 참조.

제일주의'가 하나의 통치 담론으로 부상하고 자리를 잡은 것도 '적대적 두 국가론' 형성의 하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구갑우, 2024; 정영철, 2024). 셋째, 남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념·체제 대결의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의 흡수통일 메시지를 지속 발신한 것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김상기, 2024b). 넷째, 북한의 신냉전·비서방 외교 전략도 하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미래 대립과 미중 경쟁 등의 국제관계 구도를 활용하여 대러·대중 협력을 비롯한 비서방 외교의 확대·강화를 통한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대남관계 개선의 동기는 약화되었다고 보여진다(김상기, 2024a, 2024b).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대미관계

북한은 미국과도 어떤 대화도 없다.⁶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에 폐기를 요구한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통해 대북적대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8차 당 대회 당시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던 대미정책의 기조는 강대강 정면승부 대응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 행동을 수반했다. 북한은 2022년 3월,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이래, 2024년 11월 말 현재까지 12차례 발사했으며,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헌법에 명시했다(김상기, 2023, 2024b).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6 북미대화는 2019년 10월 스톡홀름 핵협상 이후 현재까지 중단 상태이다.

차원을 넘어 세계 여러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반미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입장과 정책의 배경에는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지속과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 실패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중요하게, 신냉전·비서방 외교 전략이 대미협상 실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즉,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비롯한 비서방 외교가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차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 등의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현재 북한은 그 차선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미국에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한편,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대규모 해외파병까지 단행하면서 비서방 외교에 집중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V. 맺음말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이후 2024년 11월 말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 어떤 대화·교류도 없었던 반면, 러시아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과는 2023년 8월 국경봉쇄 해제 이후 활발하게 외교를 추진해 왔다. 이는 신냉전 구도와 다극화 추세를 최근 국제관계 변화의 주된 특성으로 인식하면서, 그 변화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신냉전·비서방 외교 전략에 기인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은 체제 안전의 강화, 경제발전의 도모, 외교적 고립의 탈피로 요약될 수 있다.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및 비서방 여러 나라와의 양자외교, 다자외교 추진을 통해 체제 안전의 강화와 외교적 고립 탈피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목표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함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및 식량 지원은 북한 경제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지만 여타 무역과 투자, 산업 등 분야의 북러 협력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에서는 제재가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 무역 총량의 95%를 넘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신냉전·비서방 외교가 경제발전의 활로를 충분히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러 군사협력에 중국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북중관계에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 북한은 일단 현재와 같은 신냉전·비서방 외교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기초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 관계에서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지속된다고 인식하는 한 강대강 정면승부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은 비서방 협력 증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북한의 외교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사이에 서신 교환이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다. 물론 서신 교환이 곧 협상의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 또는 제안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미 대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에게 제재의 완화·해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대북적대정책 중단 관련 조치가 그 과제 해결 가능성의 잣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진전된다면, 그것은 북한 외교정책 기초의 재전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갑우. 2024,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9-53.
- 김상기. 2023,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현대북한연구』, 26권 3호: 199-235.
- _____. 2024a, “국경봉쇄 해제 이후 북한의 외교: 특징과 의도,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8월 12일.
- _____. 2024b,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변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3집 3호: 95-126.
- _____. 2024c, “최근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현황 및 분석,” 『Online Series』, CO 24-62 (통일연구원, 11월 26일).
- _____. 2024d, “최근 북한의 대중국 외교 및 양자관계 현황 분석,” 『Online Series』, CO 24-64 (통일연구원, 12월 3일).
- 김정은. 20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9월 30일.
- _____. 20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주체111(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9월 9일.
- 『로동신문』. 2021/01/09,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4일회의 진행.”
- _____. 2023/01/0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_____. 2023/06/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_____. 2023/09/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쩨동지와 회담하시였다.”
- _____. 2023/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_____. 2024/06/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 『연합뉴스』. 2024/05/07, “북한 대외경제상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 준비.”
- 정영철. 2024,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6집 1호: 7-47.
- 『조선중앙통신』. 2022/02/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 최장호·이희선. 2024,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2.

—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

장 철 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의 국방중기계획과 유사한 이른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지 4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북한 매체는 제8차 노동당 대회 직후 내놓은 보도에서 군사분야의 중기계획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논의했는지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¹ 이로 인해 북한 외부에서는 그저 북한이 당시까지 추진하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세부적으로 지시·강조한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된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21년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진행’ 보도를 통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으며, 이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21년 9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보도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지 8개월 만에 북한 당국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분야의 중기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에서 대남·대외정책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2021년 9월 15일 내놓은 담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논의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 매체는 2022년 초까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조선중앙통신』, 2022/01/06), 2022년 1월 12일 김 위원장의 ‘극초음속 미

1 북한 당국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다고 밝힌 대목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사일 시험 발사' 참관 소식부터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소식을 2022년 3월 10일 전하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논의한 군사분야 중기계획의 명칭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제8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된 2021년 1월 추진되기 시작해 2025년 12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4년 차에 해당하는 2024년에는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사항들을 산술적으로 80% 정도 완료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2024년 11월 말 현재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를 평가한다. 끝으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수하려면 북한이 2025년 군사분야의 어떠한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이 군사적 변화를 추진할 것인지를 전망한다.

I.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직후 발표한 각종 매체의 보도에서 군사분야의 중기계획 논의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여 동안 관련 사안을 사실상 함구

하던 북한은 2021년 9월 중순부터 각종 무기체계의 시험 및 이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노동당 관련 회의 소식 등을 보도하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군사분야 중기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어떠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는지를 조금씩 공개했다.

따라서, 북한이 1980년대 초반 구소련제 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른바 ‘역설계(reverse-engineering)’ 방식으로 나름의 설계도를 만들어 미사일 개발의 토대를 구축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는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면밀하게 종합·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사후적으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채워나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역설계 방식으로 만든 설계도는 당초의 설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매체가 보도하지 않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자료 취득의 제한이 있는 이른바 ‘북한 연구’ 및 ‘군사 연구’에 있어서 필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했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핵무기 ▲핵 투발수단 ▲재래식 군사력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핵무기 부문에는 전략핵과 전술핵이, 핵 투발수단 부문에는 미사일과 비미사일이,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는 육·해·공군 및 기타 병종 등이 포함된다.

먼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무기 부문의 주요 내용을 일정하게 채워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총론적 측면에서 ‘핵기술 고도화’ 및 ‘핵탄두 보유량 증가’ 등의 목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핵기술 고도화와 관련해 각론적 측면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및 전술 무기화, 이를 통해 각이한 수단 적용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이 목표로 설정됐을 수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생산을 지속하라고 지시한 ‘초대형 핵탄

두’는 이른바 ‘전략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핵 투발수단의 주요 내용은 총론적 측면에서, ‘핵타격 능력 고도화’, ‘핵타격 수단 다종화 및 여러 군종 실전배치’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핵타격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각론적 측면에서 ①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 ②극초음속 탄두 개발도입 ③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사업 추진 ④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①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7’형 개발 및 ‘화성-15형’ 양산 및 실전배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화성-12’형 양산 및 실전배치 ▲고중량 탄두 탑재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600mm 방사포 양산 및 실전배치 ▲철도로 기동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및 관련 부대 창설 ▲장거리 지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완료 및 실전배치 등이 목표로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③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ICBM급으로 평가되는 고체엔진 ‘화성-18’형 및 ‘화성-19’형 개발 ▲새로운 고체엔진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140tf 대출력 고체엔진(ICBM용) 개발 등이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존 중형 잠수함의 탑재 무장체계를 변경하는 등 공격형으로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 진수(저비용 첨단화 전략,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별개) ▲신형 SLBM 개발 ▲SLCM(수중발사(잠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 ▲핵무인 수중 공격정(해일) 개발 및 실전배치 등이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전략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를 위한 대형 발사대 차량(TEL) 생산, 다양한 전술 미사일 발사대 차량 개발 및 생산 등도 목표에 포함됐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찰 능력 향상과 관련해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 개발을 정찰수단 개발 목표 일환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끝으로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총론적 측면에서 ‘재래식 구조에서 침

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 '군수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전망 목표', '각종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등이 목표로 제시됐을 수 있다. 여기에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강군화',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실현' 등이 추가되거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군 부문에서의 총론적 목표는 '전민 항전 준비 완성'이, 정찰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500km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이 목표에 포함됐을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 각론적 측면에서는 군종별 목표·계획이 다음과 같이 파편적으로 제시됐다. 육군과 관련해서는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 및 생산(제2차 장갑무력 혁명) ▲조종화를 실현한 방사포탄(122mm 및 240mm) 생산 증대 등이, 해군과 관련해서는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하에서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등이 목표로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항공 및 반항공군과 관련해서는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개발 ▲무인공격기 개발이 목표로 제시됐으며, 새로운 저격무기 개발 및 생산이 기타 부문의 목표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1.1)의 주요 내용 추론

구분	목표·계획 목록	비고
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기술 고도화 ◦ 핵탄두 보유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급 핵물질 생산 증가 	
전략핵	◦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전술핵	◦ 핵무기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핵 투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타격 능력 고도화 ◦ 핵타격 수단 다종화 및 여러 군종 실전배치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17형 개발 - 화성-15형 양산 및 실전배치 - 화성-12형 양산 및 실전배치 - 고중량 탄두 탑재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 600mm 방사포 양산 및 실전배치 - 철도 기동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및 관련 부대 창설 - 장거리 지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완료 및 실전배치 ◦ 극초음속 탄두 개발도입(5대 과업) ◦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엔진 ICBM 화성-19형 개발 - 고체엔진 ICBM 화성-18형 개발 - 새로운 고체엔진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 140tf 대출력 고체엔진(ICBM용) 개발(5대 과업) - 수중 고체엔진 ICBM 개발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미사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추진 잠수함 건조 - 기존 중형 잠수함의 탑재 무장체계를 변경하는 등 공격형으로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 진수 - 신형 SLBM 개발 - 잠대지 SLCM 개발 및 실전배치 ◦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발사(5대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리경-1호 궤도 진입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미사일용 대형 TEL 생산 - 다양한 전술 미사일 발사대 차량 개발 및 생산 	
비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非미사일) 개발 - 핵무인 수중 공격정(해일) 개발 및 실전배치 	

구분	목표·계획 목록	비고	
재래식 군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 -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강군화 -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 군사기술 강군화 ◦ 군수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 각종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 정찰수단 개발 - 500km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개발 	비정규군	
	◦ 전민 항전 준비 완성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 및 생산 - 조종화를 실현한 방사포탄(122mm 및 240mm) 생산 증대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 위력한 함 건조 - 함상 및 수중 무기체계 개발 ◦ 함선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신형 함선 기관(엔진) 개발 및 생산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개발 - 무인공격기 개발
기타	◦ 새로운 저격무기 개발 및 생산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종합해 필자 작성.

II.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상황 평가

이 부분에서는 앞서 <표 1>과 같이 정리한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개최 이후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약 4년 동안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핵무기 관련 목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총론적 측면에서의 목표 중 하나인 ‘핵기술 고도화’의 성과는 상당히 높은 수

준으로 평가된다. 북한 매체가 2023년 3월 27일 김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이른바 ‘전술 핵장치(탄두)’로 짐작되는 ‘화산-31’을 공개했기 때문이다(『조선중앙통신』, 2023/03/27). 무기급 핵물질 생산량 증가도 북한 매체가 2024년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및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조선중앙통신』, 2024/09/13). 김 위원장이 2024년 9월 중순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며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핵탄두 보유량 증가’ 역시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론적 측면에서 전략핵 관련,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이라는 목표를 북한이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언급한 ‘초대형 핵탄두’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장치인지 예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초대형 핵탄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무기급 핵물질의 종류와 양을 개략적인 수준에서라도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핵무기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목표는, 앞서 언급했던 화산-31 핵폭발 장치의 외형 등을 고려했을 때, 시제품 제작을 넘어서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핵 투발수단과 관련한 목표를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핵타격 능력 고도화 및 핵타격 수단 다종화 및 여러 군종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 투발수단과 관련한 미사일 및 비미사일 부문의 무기체계 대부분에서 시험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사일 부문 가운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 목표는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2023년 2월 18일 화성-15형의 기습발사

훈련을, 이로부터 약 1개월 뒤인 동년 3월 16일에는 화성-17형의 발사훈련을 각각 진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2년 1월 30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중량 탄두 탑재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탄두 중량 2.5t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2021년 3월 25일 진행한 북한이 2024년 7월 1일과 동년 9월 18일 탄두 중량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 미사일인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00mm 방사포와 관련해 북한은 2023년 2월 20일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 3월 18일에는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600mm 방사포 사격훈련을, 동년 5월 말에는 서부국경 지역에 주둔하는 포병연합부대 산하 제331붉은기포병연대 제3대대의 600mm 방사포 위력시위 사격이 이뤄진 바 있다. 이로 미뤄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2021년 9월 16일 이미 창설한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처음 밝혔고, 2023년 2월 23일에는 장거리 지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은 2021년 9월 28일과 2022년 1월 11일, 2024년 1월 14일, 서로 다른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각각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2024년 3월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뒤 동년 4월 2일에는 고체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화성-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아직 개발 중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극초음속 탄두와 이러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에 액체연료 엔진과 고체연료 엔진을 각각 탑재하는 방안을 아직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체엔진 ICBM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2023년 4월 13일과 동년 7월

12일 고체연료 액체를 장착한 화성-18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각각 단행했고, 2023년 11월 11일과 동월 14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에 장착될 고체연료 엔진 1단 및 2단의 시험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18형보다 더욱 큰 화성-19형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도 진행했다. 이처럼 고체엔진 ICBM 개발과 관련해 이뤄진 조치가 모두 시험 및 시험발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ICBM 개발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0tf의 추력을 내는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2022년 12월 15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이후 이렇다 할 보도 내용이 없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힌 ‘수중 고체엔진 ICBM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과를 거둘 때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관련 목표 달성 수준은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9월 6일 열린 김군옥영웅호 진수식에서 “발전전망적인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군 당국은 2024년 10월 초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북한이 기존에 보유·운용하던 잠수함보다 더 큰 대형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 중인 이 잠수함이 핵잠수함인지 아니면 디젤엔진을 장착한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에 불과한지 등에 관한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연합뉴스』, 2024/10/08). 한편 북한은 2021년 10월 19일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한 뒤 이렇다 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나, 2024년 1월 28일에는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장치 탑재 미사일 보유에 매우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고, 이날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한 뒤 10여 일의 ‘세밀조종’ 기간을 거

쳐 2023년 12월 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심의·결정하며 2024년에만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조선중앙통신』, 2023/11/22, 12/31). 그러나 북한은 2024년 5월 27일 단행한 2024년의 첫 정찰위성(만리경-1-1호) 발사에서 실패했고, 그 이후로는 2024년 11월 말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의 열병식 등에서 장·중·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이동식 발사차량을 다수 등장시켜 왔으며,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미사일 발사차량의 '당면 생산 목표', '계획된 생산목표 수행' 등을 강조했다라는 점으로 미뤄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사일이 아닌 핵무기 운반수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밝힌 '해일'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3년 3월 21~23일, 동월 25~27일 핵무인 수중 공격정인 해일-1형 시험을 각각 진행했고, 동년 4월 4~8일에는 해일-2형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2024년 1월 중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에 있는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는 '해일'과 관련한 보도를 북한 매체는 내놓지 않고 있다.

끝으로,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재래식 군사력 관련 목표가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를 정리해보자. 총론적 측면에서, 북한군을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정예화된 군대로 비약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정성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 매체가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민군의 최정예화·강군화, 무장장비의 지능화·정밀화·무인화·고성능화·경량화, 군사기술 강군화 등의 달성 수준을 단정해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군수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각종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500km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개발’, 비정규군 관련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목표인 ‘전민 항전 준비 완성’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평가·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진행한 정권 수립 75주년 민방위무력 열병식 등에 등장한 무기체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민 항전 준비 완성’은 일정하게 지속 추진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각론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제시된 군종별 목표·계획 달성 수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육군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8월 11~12일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전투장갑차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생산이라는 목표는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2023년 8월 중순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며 ‘122mm 및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조종화를 실현한 방사포탄(122mm 및 240mm) 관련 목표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련, 다소 추상적 성격이 강한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함선 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등의 목표 달성 수준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8월 중순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며 “함선,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원성능 유지”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전반적으로 해군 무기체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23년 9월 6일 김군옥영 옹호 진수식에서 ‘현대적인 기관공업의 창설을 촉진하여 함선 기관(엔진)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군무력 변화의 관건 … 선진시대의 신형 함선 기관들을 적극 개발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신형 함선 기관(엔진) 개발 및 생산’이라는 목표는 당분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2수상함전대 시찰에서 “위력한 함 건조와 함상 및 수중 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능력을 빠른 기간

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위력한 함 건조’, ‘함상 및 수중 무기체계 개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공군 관련, 북한은 2021년 9월 30일 국방과학원 주관으로 “새로 개발한 반항공(방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2024년 2월 2일과 동년 4월 19일 미사일 총국 주관으로 신형 방공 미사일(별찌-1-2(4.19))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까지 아직 보여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개발’ 목표는 아직 시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8월 3~5일 무인공격기 발동기(엔진)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며 “발동기의 성능과 믿음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2024년 8월 24일에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방문해 각종 무인기 성능시험을 살펴본 바 있다. 이로 미뤄 ‘무인공격기 개발’ 목표는 아직 시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8월 3~5일 ‘새로운 계열의 저격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하며 “위력한 우리식 저격무기 생산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피력 …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5월 11~12일 주요 저격무기 생산 기업소 등을 방문했고, 동년 8월 18일에는 국방과학에서 개발한 7.62mm 저격수보총(소총) 및 5.56mm 자동보총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1.1) 주요 내용의 달성 수준 평가

구분	목표·계획 목록	달성 수준 평가	
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기술 고도화 ◦ 핵탄두 보유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급 핵물질 생산 증가 	상당히 높은 수준 일정한 성과 상당한 성과	
	전략핵	◦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평가 불가
	전술핵	◦ 핵무기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시제품 제작 이상
핵 투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타격 능력 고도화 ◦ 핵타격 수단 다중화 및 여러 군종 실전배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17형 개발 - 화성-15형 양산 및 실전배치 - 화성-12형 양산 및 실전배치 - 고중량 탄두 탑재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 600mm 방사포 양산 및 실전배치 - 철도 기동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및 관련 부대 창설 - 장거리 지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완료 및 실전배치 ◦ 극초음속 탄두 개발도입(5대 과업) ◦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엔진 ICBM 화성-19형 개발 - 고체엔진 ICBM 화성-18형 개발 - 새로운 고체엔진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 140tf 대출력 고체엔진(ICBM용) 개발(5대 과업) - 수중 고체엔진 ICBM 개발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미사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추진 잠수함 건조 - 기존 중형 잠수함의 탑재 무장체계를 변경하는 등 공격형으로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 진수 - 신형 SLBM 개발 - 잠대지 SLCM 개발 및 실전배치 ◦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발사(5대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리경-1호 궤도 진입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미사일용 대형 TEL 생산 - 다양한 전술 미사일 발사대 차량 개발 및 생산 	대체로 달성 발사훈련('23) 발사훈련('23) 검수시험사격('22) 시험발사 이상 위력시위사격('24) 검열사격훈련('21) 발사훈련('23) 개발 중('21~'24) 가시적 성과 시간 필요 시험발사('24) 시험발사('23) 부분별 시험('23) 지상분출시험('22) 가시적 성과 시간 필요 다소 비관적 전망 관련 동향 관측('24) 진수('23) 시험발사('21) 시험발사('24) 발사 성공('23)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비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비미사일) 개발 - 핵무인 수중 공격정(해일) 개발 및 실전배치 	시험('23~'24)

구분	목표·계획 목록	달성 수준 평가
재래식 군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 -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강군화 -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 군사기술 강군화 ◦ 군수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 각종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 정찰수단 개발 - 500km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개발 	<p>평가 불가</p>
	◦ 전민 항전 준비 완성(비정규군)	지속 추진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 및 생산 - 조종화를 실현한 방사포탄(122mm 및 240mm) 생산 증대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상당한 성과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 위력한 함 건조 - 함상 및 수중 무기체계 개발 ◦ 함선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신형 함선 기관(엔진) 개발 및 생산 	<p>평가 불가(노력 중)</p>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개발 - 무인공격기 개발 	<p>시험 발사(24)</p> <p>성능 시험(24)</p>
기타	◦ 새로운 저격무기 개발 및 생산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종합해 필자 작성.

III. 2025년 과제와 향후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약 4년 동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세부 목표 중에서 핵무기 및 단·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육군의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생산, 조종 방사포탄 생산 등의 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해군력 강화 등처럼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도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마지막 해인 2025년에 현재까지 성과를 거둔 사안에서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동시에 아직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사안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무기와 단·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에서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려 할 수 있으며, 해군과 관련된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아직 북한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래식 군사력 중에서 육군과 공군 관련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 해군 관련 사안에 비해 북한 매체에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공개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육군 및 공군 관련 사안이 당초부터 적게 포함됐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육군 및 공군 관련 사안이 상당히 포함돼 있으나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안이 적을 가능성이다. 당초부터 육군 및 공군 관련 사안이 적게 포함됐을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에는 상당히 포함돼 있으나 적게 공개됐을 경우에는 향후 전망이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앞으로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및 공군 관련 새로운 무기 개발 등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시점에 이뤄질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중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기술 선진국의 무기개발 동향과 북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북한의 새로운 군사력 강화 중기 계획에는 우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관련 사안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지속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보다 소형·경량화 됐으면서도 폭발력이 강력한 무기 등을, 핵 투발수단과 관련해서는 소형·경량화 및 초고속, 정확성 향상 등을 지향하는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탄도 미사일에 비해 각종 제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항공기 개발 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진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군사력 강화 중기 계획에 재래식 무기체계와 관련한 계획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다. 총괄적으로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무기체계 발전 추세인 무인화 및 자동화를 도입하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군 부문에서는 전차·장갑차 등 기동장비에 스텔스 체계를 도입하거나 방호력은 유지하면서도 장갑 경량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 부문에서는 구형 함정의 신형 교체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수상함(정)의 스텔스화, 핵잠수함 건조를 비롯한 잠수함(정)의 대형화 등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방공을 포함한 공군 부문에서는 독자적 기술력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소재 및 기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인화 및 소형 무기체계의 군집화 등을 추구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1).

참고문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진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합뉴스』. 2024/10/08.
『조선중앙통신』. 2022/01/06, 2023/03/27, 2023/11/22, 2023/12/31, 2024/09/13.

제8차 당 대회 사회문화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박민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8차 당 대회에서 사회문화 부문은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부문에 대해서만 간략한 총화가 있었고, 문학예술 및 교육부문은 언급조차 부재했다. 교육, 과학, 보건, 예술, 사상교양 등의 세부 분야를 상세하게 다룬 7차 당 대회와는 대조적이었다.

결정 사항 역시 7차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7차 당 대회에서 명명된 ‘문화강국건설’은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개화기, 새로운 조선식 문명’으로 대체되었다.¹ 자신감 넘치는 ‘강국’은 삭제되고, 그를 대신하여 톤 다운된 ‘새로운 개화기’가 등장했다. 8차 당 대회 결정은 7차 결정을 상당 부분 계승하지만 매우 소략하며, 중요 부문 일부만 강조하거나 덧대고 있다. 발전 목표 역시 하향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8차 당 대회에서 사회부문이 유독 ‘후퇴’하게 된 복합적 이유는 다음으로 추정된다.

첫째, 경제 목표 달성 부진으로 사회문화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결정서 전문 초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로동신문』, 2021/01/09: 1).

둘째, 7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내용이 연속되기에 크게 재론할 지점이 없을 수 있다. 8기 전원회의 결정들과 이행 상황 역시 대체로 7차 당 대회의 기초를 따르고 있다.

셋째, 코로나와 경제난이 중첩되면서 북한 당국이 내부 질서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반)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입법에서 명징하게 드러난 바, 내치 강화라는 점에서 김정은 통치권의 문제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1 본문에서 언급되는 8차 당 대회 결정은 별도의 내주가 없을 경우, 동일 원문에서 추출하였다.

넷째, 보건, 교육, 과학, 예술 등의 부문은 통치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영역은 물적, 인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대비 운영비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치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직결되기에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운 부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3기 전원회의의 부터 다시 해당 부문의 일부 사업을 결정, 이행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하에서는 8차 당 대회 결정의 세부 부문별 특성과 이행 현황을 분석한다. 8기 전원회의 결정, 입법, 단위별 세부 사업 추진 상황으로 나누어 구체적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II. 8차 당 대회 결정의 특성: 7차 대회 결정의 선택적 계승, 반/비사회주의와의 투쟁

7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사회문화 부문은 '문명강국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부문별로 교육(중등일반교육의 교양 및 개인 특기 강화, 대학교육 체계 개편, 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원격체계, 연구형 강의 및 교육 등), 보건(예방의학, 호담당제 강화, 의료봉사 질 개선, 의학과학기술, 군 인민병원), 체육(전문체육기술, 학교체육사업), 사회주의 예술(문학예술, 영화예술, 군중문화예술), 사상문화 및 도덕기강, 문화정서생활 기지 건설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8차 당 대회 결정은 분량이 1/3로 줄고(홍제환·최지영 외, 2021: 8) 내용 역시 7차 당 대회 결정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제시할 뿐이다.

첫째,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증시노선 관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 당적·국가적·행정적 지도 및 관리체계, 과학 연구성과 공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등이 제시되었다. 특별히 새로운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교육부문은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교육내용/방법/교수관리제도 갱신, 교원 능력 제고, 국가적 투자를 통한 학교건설 및 교육환경 개선, 도농 격차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인재양성이 경제발전과 직결되므로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기관/제약 및 의료기구공장 개선, 보건일꾼 양성 등 7차 당 대회에서의 내용이 지속되었다. 다만 코로나 등장으로 세계 보건위기 대응 목적 방역기반 조성이 새로운 결정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문학예술은 주체성/민족성/현대성 구현 작품 창작, 특색 공연 활성화, 체계적 후비 육성 등이 언급되었다. 체육의 경우 국제 대회 우승을 통한 선진국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신문·보도·방송·출판 부문에서는 당 결정 전달력 향상을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도입, 우선방송/TV방송체계 정비, 도서산간 방송 접근성 보장 등이 언급되었다.

다섯째, 가장 강조된 부문으로서,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 반/비사회주의와의 대중적 투쟁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사회제도(‘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따라 준법기풍 확립, 준법감시기관(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 책임 강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7차 당 대회 결정서에 없었던 “비사회주의”가 기존의 “반사회주의”와 함께 타도 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강력한 교양과 규률”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와 온갖 범죄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등장하였다. 이전과 달리 8차 당 대회에서는 내부적 “온갖 범죄행위”의 존재를 자인하며 경계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 강화되는 ‘법치’가 범죄 억제 및 관리의 한 장치(apparatus)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일러준다. 아울러, “세외부담”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코로나로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헌납에 대한 주민의 어려움과 불만에 대한 책임을 ‘부패’ 간부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Ⅲ. 제8기 전원회의 결과: 이행과 결정

8차 당 대회 이후 8기 전원회의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 결정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 역시 7차 당 대회 결정을 선택적으로 계승하면서, 필요에 따라 당 대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총회를 통해, 시급·중요함에도 미진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행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회의 차수별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육아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유제품 무상공급이 언급되었다. 후술하겠으나, 육아정책이 기혼 여성 대상 노동동원, 시장 억제 목적과도 긴밀히 연계된다는 점이 8기 내내 포착되고 있다(박영자·김진하 외, 2021: 6-7).

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사회문화 사업 총화는 부재했으나 다양한 하위 부문 결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수재교육 강화, 경제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과학기술인재 육성, 농촌 교원 역량 강화, 현대화 등이 등장하였다. 교복과 학용품 무상공급은 지역이나 내각 단위가 아닌 김정은(당중앙위원회) 추진 사업으로 언급되었다. 준법, 법제 강화, 반/비사회주의 투쟁, 법기관 역할 강화가 지속 강조되었다. 보건은 비상방역이 국가적 1순위 사업으로 명명되었다. 7차 당 대회에서 언급되었으나 8차 당 대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청년세대 작가 양성 역시 재차 과제로 제시되었다.

2022년 연말 총화 및 2023년 사업을 제시하는 6차 전원회의에서는 주로 사상교양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상문화 및 생활문화 확립, 사회주의법 기능 및 역할 제고, 준법기풍 확립, 대중운동, 사회적 애국운동 독려, 혁명학원 대상 당적지도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²

8차 전원회의에서는 7차 당 대회의 교육 관련 결정이 재차 언급되었고 ‘교육

2 5차는 코로나 방역에, 7차는 식량난에 경도되어 주목할 만한 사회문화 분야 논의를 찾기 어렵다.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에 대하여'가 토론으로 등장하였다. 대학 교육 구조 개선, 교육 내용·방법에 세계추세 반영,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강령 제시, 과정안 개편, 중등교육에서 하나 이상의 기술 기능 소유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시도별 유제품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정형 평가를 통해 지역 격차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9차 전원회의에서는 총화와 각 하위 부문 결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역시 대체로 7차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로동신문』, 2023/12/31: 1). 다만, 과학부문의 경우 정찰위성 발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강조하였다. 이외에 첨단과학기술 발전계획의 목적지향화, 과학연구역량 집중, 전공관련 과목의 연구형 교수·학습방법 도입, 교육내용·방법 구체화·다양화·실용화를 결정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보건의 경우 사회주의 보건정책 실시, 보건부문 물질기술적 토대(표준약국, 제약·의료품 공장, 질병예방 전문시설 등의 신설) 강화 등이 과제로 언급되었다. 코로나 감염이 감소하면서 보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축소되었다.

교육부문 강조가 지속되었는데,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가 토론으로 등장했으며 교육연구원 개설,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개건 등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본보기 학교와 유치원 확충, 육아정책 집행, 학생 교복 및 학용품 지급 등은 성과 및 지속 이행 안건으로 언급되었다.

체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상 소식을 성과로 총화하며 지속적 성과 도출을 강조하였다. 문화부문은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등의 편의 보장 성과가 소개되었다.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개선, 사법검찰 기관의 계획 및 재정금융 규율 개입 등이 결정되었다. 특히, '인민생활 안정·향상'의 전제조건으로 '법적 감시와 통제'가 제시되었다. 과학기술 혁신, 진료소·리병원 의사 기술 향상, 육아 정책 등이 논의되었으며, 청년 및 근로단체의 노력동원을 칭찬하고

더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처럼 8기 전원회의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교육 및 육아, 사상교양에 대한 선별적 집중이 점차 더 뚜렷해졌다. 또한 성과가 도출된 부분 혹은 당중앙위원회 관심 부분은 매우 구체화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된다.

IV. 사회문화 부문 결정 이행으로서의 법률 신설 및 개정³

김정은 집권 이후 법치를 강조하면서 법률 신설 및 정비도 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당 대회 결정 이행의 차원에서 입법 역시 다음 표와 같이 전개되었다.

〈표 1〉 8차 당 대회 이후 사회문화 관련 입법 내역

분류	신설 법률
주민 통제 및 교양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인민반조직운영법(2023),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인민생활 향상, 사회보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육아법(2022), 해외동포권익옹호법(2022)
교육 및 인재	수재교육법(2023년), 과학기술인재관리법(2023)
방역	비상방역법(개정, 2021), 수입물자소독법(2021, 제정 및 개정)

첫째, 주민 통제 및 교양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입법 순서를 살펴보면, 당 회에서 언급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강하게 ‘배격’하는 일종의 기본

3 이 장의 법률 자료는 모두 국가정보원(2024a; 2024b)을 참조하였다.

법을 먼저 신설하고, 이후 주요 계도 대상인 청년 관련 법을, 이어서 언어 규율, 인민반 통제 강화 등의 각 세부 법률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8차 당 대회 직전인 2020년 12월 채택되었는데, 이어질 당 대회 결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었다. 동 법은 반동사상문화의 유입 차단, 시청 및 유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당 대회 약 8개월 이후인 2021년 9월 채택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과 함께 학교 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당 규약에서도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로 규정한 만큼 법제화도 결정 이행의 차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당 대회 다음 해 채택된 것으로, ‘조선어’의 기준을 ‘평양문화어’로 규정하는 동시에 ‘괴뢰말’ 사용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써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비하되며, 생활 영역에서 ‘돌아가고 있는 괴뢰 말투를 말끔히 쓸어버리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유입으로 나타난 언어 변화를 강력통제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민반 조직운영법’이 2023년 12월 채택되어 인민반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는 주민 일상에 대한 더 깊은 통제와 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당 대회에서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당 규약 및 회의 보도 등에서 지속 언급되고 있는바 인민생활향상 및 권익 보호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한 운영, 지출, 조직, 공로자 우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육아법(2022)’의 경우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육아정책을 강조한 직후 신설되어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육아법 제정은 출산 장려의 일환이자, 8차 당 대회에서 강조했던 교육 및 보건과 긴

밀하게 연계되기도 한다. 이외에 ‘해외동포권익옹호법(2022)’이 신설되었는데, 재일 조선인 학교·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의 근거이자 재외동포를 ‘인민’으로 호명하는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8차 당 대회에서 규정된 당규약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규약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변경하였으며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중략)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셋째, 교육 및 인재 부문 법 개정은 2023년에 주로 이뤄졌다. 사상교양, 보건, 일반 교육 등 시의적 안건이 먼저 입법된 후, 다소 장기적 사업인 인재 관리에 관한 결정이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재교육법(2023), 과학기술인재관리법(2023)이 등장했는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육성의 측면과 함께 청년 교양의 중요성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방역부문에서 이례적으로, 비상방역법은 제정된 다음 해인 2021년 개정되었고 수입물자 소독법이 2021년 개정·제정되었다. 보건부문의 법률은 개정된 바 없으나 방역 부문 법률은 전례 없이 빠르게 제정 및 개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강력한 통제에 기반하여 방역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정 비상방역법은 경한 위법은 처벌을 약화하고, 중한 위법은 처벌을 강화했다. 최고형은 사형으로 증량되었고 법적 처벌 대상이 증가하였다. 업무상 태만, 위법자 신고에 따른 의무 및 포상 등이 포함되었다. 수입물자 소독법은 각 물품에 따라 각각 까다로운 규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입자가 소독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커서 방역과 수입통제 목적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박민주, 2024: 284-287).

V. 사회문화 부문의 단위별 세부 사업 이행 성과 및 과제

사상교양 부문은 개별 단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입법 및 단속, 처벌의 형태로 당 결정이 강력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사상교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당 결정에 대해 단위별로 어떠한 이행 성과가 있으며, 부문별 과제와 제한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1. 과학

매년 개최되는 전자 및 정보기술 중심 전시회, 10대 모범화 단위 및 10대 최우수정보기술제품 선정 등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연구형 대학교육'기치에 따라 대학 산하 연구소들의 출품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김일성종합대학 지능개발연구소에서 '지능진단'이라는 AI 기계감시 및 고장진단 체계를 개발하고 2024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에 선정되었다(『로동신문』, 2024/10/06: 5). 첨단기술제품 등록을 장려하며 '경제기술지표가 국내에서 가장 앞서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의 개발 및 등록도 권장되고 있다(『로동신문』, 2024/09/29: 5). 10대 정보화모범단위에는 교육부문이 총4곳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교원대학, 모란봉 제1중학교가 해당한다(『로동신문』, 2024/09/27a: 5). 다만, 다양한 단위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단위가 2, 3, 4차례 재선정되는 등 격차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대학 역시 생산-연구 일체화를 강조하지만, 김책공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첨단기술개발원) 두 곳만 지속적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9차 전원회의에서 극찬을 받았던 우주기술 관련 성과 역시 별다른 바가 없다.

단위 간 경쟁과 교류가 지속 강조되는데 단위들의 입장에서 전시회를 통한 상품 판매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평양향료공장의 경우 천

연 름스프레이, 향수 등의 기호성 상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교류, 교환’을 통해 ‘자신감과 분발심’을 키웠다고 언급되었다. 다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경쟁심과 ‘승벽심’만을 요구하는 기술 몰이해적 모습도 관찰된다. 북한 당국 스스로 ‘아직 극복해야 할 편향들도 없지 않’다고 인정하듯 실질적 상용화와 기술성과 도출은 어려운 모양새다.

2. 교육

교육에 대한 강조는 8기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나며, 교육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라거나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반복 언급하기도 한다(『로동신문』, 2024/09/22: 5).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형 교육 및 교수법 다양화, 학생 간 경쟁 조성, 교원 평가 및 경쟁 분위기 조성 등의 ‘8기 9차 전원회의 결정관철’ 관련 내용이 노동신문에 종종 보도되었다. 특히 실습 및 실기 교육이 많은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평양건축대학의 경우 전원회의 직후 대학에서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을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도 강조되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을 못 받게 된 교원들의 교권 추락 및 사기 저하 해소의 목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총화로만 끝내지 말고 성과를 보급하여 일반화하라는 언설로(『로동신문』, 2024/10/21: 5) 미뤄보아, 학교 현장에서는 총화만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 정보화 역시 전용망이 있다고 하나 사용률이 높지 않고, 도농 간 시설 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임이 보도되고 있다. 때문에 연관 단위, 후원단체, 당조직이 컴퓨터, 액정TV 교육수단 등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춰주어야 한다는 점도 노동신문을 통해 지시되고 있다(『로동신문』, 2024/10/15: 5).

4차 전원회의의 결정 이행에 대해서는 각지 교복공장 설립, 소년단대회 참가자 교복·솜옷 지급 등의 소식이(『로동신문』, 2024/09/04: 2) 보도되고 있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지역별 이행 상황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보아 지역 격

차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복지급과 어린이 유제품 공급 결정은 연중 지속 언급되는데, 사업 이행 여부와 별개로 김정은의 ‘애민’ 정치를 선전하는 코드의 하나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 특히 육아 정책은 여성 노동력 차출 및 시장 유입 제한과 맞물려 있다(박영자·김진하 외, 2021: 6-7). 가령 강서구역 원료 기지사업소에 성천군 서기동의 여성들이 단체차출(‘탄원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 노동력 활용은 ‘힘들지만 자식들을 위한 일’로 의미화되며 “아이들에게 안겨지는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 새 교복과 신발, 영양가높은 젓제품”에 대한 고마움의 급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로동신문』, 2024/07/22: 4). 당 중앙위 주도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시장 축소와 통치권 회복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추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문학예술, 체육, 신문·보도·방송·출판

문학은 ‘전국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과 같은 정기적 행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천리마 시대의 소설을 소환하며 당시의 열심을 되찾자는 선전도 등장하였다. 민족음악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성 주최로 민족예술경연(민족음악, 민족무용, 전국조선장단경연)이 조직되었고, 지방예술단체들은 공연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심사받고 평양에서는 중앙예술단체들이 집체 경연을 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음악예술 부문 간부, 창작자, 예술가, 교육자들에게 민족음악 경연, 민족음악보급선전, 민족악기의 현대적 개량, 연구사업 심화, 민족음악 교육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로동신문』, 2024/09/17: 2). 사상교양 강화 기조를 감안하면, ‘괴뢰문화’ 근절을 위한 ‘민족문화’ 강조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육의 경우 국제 체육경기 수상, 조선체육대학 중심의 교육구조 개편, 전국 대학 대상 과정안 작성 강습, 학습자 주도형 교육, 교수법 개발 및 보급 등을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연초에는 유네스코(UNESCO)에 태권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태권도 대학들의 훈련설비, 운동심리 측정 및 평가 프로그램, 교수 평가 등의 개발에 관해 언급은 되고 있으나(『로동신문』, 2024/09/27b: 5), 성과 공유나 확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생각된다.

신문·보도·방송·출판은 큰 성과를 찾기 어렵다. 평양정보기술국에서 ‘내부 무선망 체계, 구내TV방송체계’ 등을 개발하여 2024년 10대 최우수정보기술에 선정되었다(『로동신문』, 2024/10/06: 5). 그러나 주민 접근성 향상, 이동통신 세대교체 등의 결정 사항 이행은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4. 보건

의료인의 학습 및 재교육을 강조하며 의료인끼리도 경쟁을 통해 학습열의를 높이도록 권고하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잘될수 없”다고 표현으로 미뤄보아 현장에서는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으로 당에서 품들어 갖추어주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활용하기 모든 의료인이 석사가 된 평양의학대학병원 소화기내과처럼 공부를 하라는 언설도 등장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학습할 수 있는 시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기관들의 보장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해소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문의 ‘연구형 학습 및 강의’와 맞물려, 의학대학 역시 ‘연구형 대학’이 강조되고 있다. 의학 연구성과를 상품생산에 반영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구성을 목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능력 있는 교원’에게 연구사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진의학대학은 의학연구소, 의학과과학기술교류소, 의료품 생산소를 모두 의학과과학기술원 산하에 두도록 개편했는데, 의료기술 상품화를 보다 조직화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10차 전원회의에서 호담당 의사 실력 강화가 논의된 이후 재교육, 의료봉사, 중앙급 기관 의료인의 지역 파견, 원격의료 및 의술 전수 등이 권고되고 있다. 교원과 더불어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업인 의사들에게 역량강화와 직무 집중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별다른 성과가 보도되지 않았는데, 중앙병원에 배치받지 못한 각 지역 호담당 의사들이 자재, 전력, 기술전수 등의 문제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과학-보건-교육 등이 중첩된 사안의 경우 IT나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성과확산은 아직 어려워 보인다. 가령, 의학연구원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에서 2023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 출품한 영양상태 평가 프로그램을 2024년 가을 성과로 보도하면서도 보급상황이나 구체적 활용 양상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VI. 결론

8차 당 대회는 사회문화 부문에서 새로운 결정 없이 7차 당 대회 결정을 선택적으로 계승하였다. 또한 사회문화 부문 슬로건은 7차 당 대회의 ‘강국’에서 8차 당 대회의 ‘새로운 개화기’로 하향 대체되었다. 다만, 5년을 지속하여 공란으로 둘 수 없기에 8차 당 대회의 빈칸을 8기 전원회의가 채우는 모습도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및 육아, 사회주의 교양 등이 입법, 세부 사업 등으로 이행되고 있다. 다만, 개별 단위의 소략한 수행을 중심으로 이행 성과가 보도되고 있다.

구체적 결정이 등장한 보건(비상방역), 교육(교복 및 학용품), 육아(유제품), 사상교양(법치 강화 및 법기관 위상 확립) 등은 비교적 적극 추진되었는데, 당 중앙위 주도 사업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로 선전되는 육아 및 교육 정책의 경우 기혼 여성 노동력 동원, 시장 축소 등을 촉발함으로써, 다시금 북한 당국이 주민 생활을 ‘틀어쥐’도록 하는데 주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지속 강조된 사상교양 문제는 다양한 통제 관련 입법, 처벌 형량 강화 등으로 이행되고 있다.

과학, 교육, 보건 부문은 경쟁,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정보화 등의 통상적 이슈가 다뤄지고 있다. 과학은 AI의 산업 및 교육 현장 도입에, 대학은 연구-생산 일체화를 통한 수익 도출을 요구받고 있으나 두 과제 모두 상당한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이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화예술 및 체육 부문은 민족성 발현, 세계적 경쟁력, 기관 및 인력 간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

당 대회 결정 이행은 예산의 출처나 규모로도 파악해볼 수 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국가예산 보고를 살펴보면 방역(전년도의 113.2%), 과학(전년도의 100.9%), 육아 및 학생 정책(전체지출의 36.8%; 유제품 및 학용품, 교복)에 주로 예산이 집중되었다(『로동신문』, 2024/01/16: 7).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부문만 유독 “함선헌납기금, 아동보육기금, 서로돕기기금, 사회주의애국기금” 등의 기금헌납운동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헌납분으로 사회문화 부문의 경비를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예산 역시 사회문화 부문은 모두 전년 대비 105% 이상 증액하여 “많은 자금을 지출”하겠다고 하였다. 과학기술발전 사업비는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별도 분리하고 전년대비 109.5% 선으로 예정하였고 방역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의 막대한 비용 역시 전년도처럼 주민 헌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 부문 기관, 기업소 역시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정 사항 자체가 수익보다 장기적 투자와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 당국 역시 당 대회나 전원회의에서 사회문화를 일부러 소략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8차 당 대회는 7차 당 대회에서의 기대와 달리, 5년 전의 선언적 결정들을

건어내고 현실적 차원으로 목표를 하향화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가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당 중앙위 주력 사업을 제외한 전반 사회문화 부문에서 관련 책임을 맡은 개별 단위들은 적어도 8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도출한 작은 성과들을 이행 사항으로 보고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 중앙위 주도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생활향상” 사업이 시장 제한과 통치력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통치권 회복의 성패 정도는 향후 전원회의와 신문보도를 통해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24a, 『북한법령집 上』.

_____. 2024b, 『북한법령집 下』.

박민주. 2024, “보건의료: 북한은 어떤 보건의료법제를 운영하나요?,”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박영사): 269-292.

박영자·김진하·정은미·최지영. 2021,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Online Series』, CO 21-18 (통일연구원, 6월 22일).

홍제환·최지영·정은미·조정아. 202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Online Series』, CO 21-02 (통일연구원, 1월 15일).

『로동신문』. 2021/01/09: 1,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 강령: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_____. 2023/12/31: 1-5,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_____. 2024/10/15: 5, “교육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 나가자.”

_____. 2024/10/21: 5, “교육기관들 사이 경쟁열의를 고조시키자.”

_____. 2024/10/06: 5, “2024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들이 선정되었다.”

_____. 2024/01/16: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_____. 2024/07/22: 4, “새출발도 좋지만 보답의 마음이 더 장하다.”

_____. 2024/09/17: 2, “민족음악발전에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

_____. 2024/09/22: 5,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집약된 교육시책들.”

_____. 2024/09/27a: 5, “2024년 10대정보화보범단위가 선정되었다.”

_____. 2024/09/27b: 5, “정통무도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사업 강화.”

_____. 2024/09/29: 5, “과학, 문화부문 소식.”

_____. 2024/09/04: 2, “소년단대표들이 받아안은 새옷.”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2.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1977
3.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소실 편 1979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1979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저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저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7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2008
29.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2009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이수훈 편 2012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nding a Global Stalemate*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자금용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복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을출 저 2021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종 저 2022
6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이병철 저 2023
64. 트럼프-김정은 친서를 통해 본 북미회담의 A to Z	이정철 저 2023
65. 신진연구자가 본 김정은 체제	강혜석 외 공저 2023
66.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박서화 2023
67.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김상범 2024
68.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박정진 외 2024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1.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2. 「테크네트로닉」 시대의 국제정치	Z.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3. <i>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i>	Jae Kyu Park et al., eds. 1975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5. <i>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i>	Jae Kyu Park ed. 1979
6. 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9. <i>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i>	Jae Kyu Park et al., eds. 1983
10. <i>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i>	Jae Kyu Park et al., eds. 1984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12. <i>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i>	Jae Kyu Park et al., eds. 1987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alogue*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39.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 이관세 외 저 2024

■ 통일연구 시리즈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김한교 외 공저 1986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구영록 외 공저 1986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연구소 편 1996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광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광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 지역연구 시리즈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염홍철 편역 1977
4.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5.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Regional & International Politics*
Jae Kyu Park et al., eds. 1977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김국진 외 공저 1987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정광하 저 1989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Tae-Hwan Kwak et al., eds. 1991
15. 소련 이은순 외 공편 1991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한석태 외 공저 1991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연구소 편 1996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이영형 저 1999

■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염홍철 외 공저 1987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Su-Hoon Lee 1988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이수훈 외 공저 1989

- | | |
|---------------------|---------------|
|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 이수훈 외 공저 1989 |
|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 이수훈 외 공저 1991 |
|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 김세균 외 공저 1992 |

● 번역 시리즈

- | | |
|---------------------|---------------------------|
| 1.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4 |
| 2. 농민혁명 |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1995 |
| 3. 동원에서 혁명으로 | 찰스 킬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1995 |
| 4. 제국의 신화 |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6 |

● 자료집 시리즈

- | | |
|----------------------------------|----------|
|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 1991 |
| 2. 지방미군정 자료집 | 1993 |
| 3. 김일성 연구자료집 | 2001 |
|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 2004 |
|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 2006 |
|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 조진구 2020 |
|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 조진구 2021 |

● IFES 브리프 시리즈

- | | |
|-------------------------------|---------------|
| 1.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의의, 평가 및 전망 | 이상만 외 공저 2022 |
|-------------------------------|---------------|

● IFES 정책보고서 시리즈

- | | |
|---|----------|
| 1.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향후 전망 | 임을출 2020 |
| 2.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한 대남 사과·유감 표명 사례 연구 | 김상범 2020 |
| 3. 김정은 시대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전망 | 최천운 2020 |
| 4.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이병철 2020 |
| 5.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정책 - 축산업, 수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 김일한 2021 |
| 6.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경학적 협력의 지속과 변용- | 이상만 2021 |

7.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외신 보도 동향 분석 -	문미리 2021
8. 인도-태평양 지역 내 쿼드(Quad)를 통한 협력과 전망 -해상 실크로드와 쿼드간 견제와 균형-	강지연 2021
9.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소고(小考)	이병철 2021
10.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이병철 2021
11.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72' 체제의 지속과 변화-	이상만 2021
12.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남·북관계에 미친 행위역량	박요한 2022

■ IFES 연구보고서 시리즈

1. AUKUS 참여국의 국익 분석	정재욱 2022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반도 협력	임강택 2022
3.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가?	김상범 2022
4.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내구력 구성요소 탐색	임을출 2022
5.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 비교분석: 미 <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문미리 2022
6. '근미래무기'와 대북 확장억제력 동학(動學)	이병철 2022
7. 미·중 간 국력 비교	정재욱 2022

■ 한반도리포트 시리즈

1. 한반도 리포트 2010/2011 한반도 정세: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연구소 편 2011
2. 한반도 리포트 2011/2012 한반도 정세: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	연구소 편 2012
3. 한반도 리포트 2012/2013 한반도 정세: 2012년 평가와 2013년 전망	연구소 편 2012
4. 한반도 리포트 2013/2014 한반도 정세: 2013년 평가와 2014년 전망	연구소 편 2013
5. 한반도 리포트 2014/2015 2015 한반도 정세 전망	연구소 편 2014
6. 한반도 리포트 2017/2018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연구소 편 2017
7. 한반도 리포트 2018/2019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연구소 편 2018
8. 한반도 리포트 2019/2020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연구소 편 2020
9. 한반도 리포트 2020/2021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연구소 편 2020
10. 한반도 리포트 2021/2022 한반도 정세: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	연구소 편 2021
11. 한반도 리포트 2022/2023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연구소 편 2022

● 한반도포커스 시리즈

- | | |
|---|-------------------|
| 1. 2014년 여름호(제28호) 기로에 선 동북아: 이슈와 전망 | 윤대규 편 2014 |
| 2. 2014년 가을호(제29호)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해법은? | 윤대규 편 2014 |
| 3. 2014년 겨울호(제30호)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변화 그리고 남북관계 | 윤대규 편 2015 |
| 4. 2015년 봄호(제31호) 김정은 시대, 주변국의 대북정책: 지속과 변화 | 윤대규 편 2015 |
| 5. 2015년 여름호(제32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호전되고 있는가? | 윤대규 편 2015 |
| 6. 2015년 가을호(제33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과 우리의 과제 | 윤대규 편 2015 |
| 7. 2015년 겨울호(제34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반도의 미래 | 윤대규 편 2016 |
| 8. 2016년 봄호(제35호) 북핵 위기의 진단과 전망 | 윤대규 편 2016 |
| 9. 2016년 여름호(제36호) 김정은 정권의 체제운용전략:
제7차 당대회·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 윤대규 편 2016 |
| 10. 2016년 가을호(제37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 | 윤대규 편 2016 |
| 11. 2016년 겨울호(제38호) 2017, 전환기의 한반도와 새로운 미래 | 윤대규 편 2017 |
| 12. 2017년 봄호(제39호) 새 정부의 대외정책 | 윤대규 편 2017 |
| 13. 2017년 여름호(제40호)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 과제와 전망 | 윤대규 편 2017 |
| 14. 2017년 가을호(제41호) 김정은 집권 6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 윤대규 편 2017 |
| 15.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 박영준 외 공저 2023 |
| 16. 2023-0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 김상규 외 공저 2023 |
| 17. 2023-0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 전재성 외 공저 2023 |
| 18. 2023-0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 루신지 외 공저 2023 |
| 19.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 이영훈 외 공저 2023 |
| 20. 2024-01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 나카토 사치오 외 공저 2024 |
| 21. 2024-02 중국의 국가 리스크와 글로벌 대전략 구상의 해부 | 이상만 외 공저 2024 |
| 22. 2024-03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확보 가능성과 과제 | 이병철 외 공저 2024 |
| 23.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 최용환 외 공저 2024 |

회원가입안내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연구소로 우송,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회비 및 납부방법

1.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
- 일반회원: 50,000원 이상
- 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0,000원
- 기관평생회원: 3,000,000원
- * 해외회원은 우송료 15,000원 별도 청구

2.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 ② 온라인: 경남은행 / 570-07-0011980, '경남대학교'

3. 재가입: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재가입 안내문 발송 예정).

◎ 회원 혜택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내외 학술회의는 물론, 삼청포럼과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등에 초청의 기회가 부여되며, 관련 연구·학술 자료가 제공됩니다.
3. 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연구서,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 학술 행사 공지사항 및 결과서, 연구소 뉴스레터, IFES브리프(국·영문)와 IFES FORUM(영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편 또는 e-mail).

◎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전화 3700-0725, 팩스 3700-0722
E-mail: pedia@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 신청일 20 년 월 일

분 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개인평생회원 <input type="checkbox"/>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 -
발간물 발송	<input type="checkbox"/> 직장(학교)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미수신		
발간물	<input type="checkbox"/> Asian Perspective(인쇄물) <input type="checkbox"/> 한국과 국제정치(인쇄물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대북한연구(인쇄물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서 (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rief (e-mail 국문 <input type="checkbox"/> 영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지사항 및 결과서(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뉴스레터(e-mail <input type="checkbox"/>		
학력사항	대학교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_____ (인)

